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0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0월 6일)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70돌 맞는 중앙신도회 '선명상대회' 추진한다

'2024년도 신도조직 임원연수'
정원주 회장, 과제 발표서 밝혀
교구신도회 등 100여 임원 참석
28대 집행부 사업보고 · 방안 발표
조직정비, 안정적 예산확보 강조

나주=김민재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내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선명상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신도 1만여 명이 함께 하는 대규모 선명상 보급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10월 26~27일 양일간 나주 중흥골드리조트에서 열린 '2024 신도조직 임원연수'에서 "중앙신도회는 다가오는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선명상 확산을 위한 '전국 신도대회'를 열 것"이라고 천명했다. 45개의 조계종 신도단체를 이끄는 중앙신도회가 선명상으로 국민 마음 평화를 도모하는 종단의 원력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이번 연수는 중앙신도회 28대 집행부의 출범에 기해 신도조직 간의 유대관계를 개선하고 향후 중앙신도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원연수에는 교구 및 사찰신도회와 신도단체, 유관단체 대표자와 임원 및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 '중앙신도회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제28대 집행부 주요사업 보고 및 운영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이 직접 나서 '중앙신도회 미래: 향후 4년의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중앙신도회 2025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선명상 확산을 위한 전국신도대회 및 70주년 기념식'을 내부 회의를 통해 계획·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강조하신 선명상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전국신도대회'를 개최할 생각"이라며 "중앙신도회 자체 예산으로 전국에서 모인 1만여 명의 불자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회장은 중앙인력 확충을 통한 '중앙운영위원회 강화'를 강조했다. 정 회장은 "사찰, 신도단체별로 대의원 숫자가 모호하다"며 "최소, 최대 대의원 수를 명확히 규정해 중앙조직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 회장은 "중앙 선임직 부회장 수를 현재 20명에서 30~35명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회비 납부 의무도 강화한다. 3개월 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부회장은 자동 해촉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신도회의 향후 사업 방향도 제시됐다. 특히 정 회장은 "젊은 층 포교에 진력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사찰 경내 어린이·청년 전용 공간을 확보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 회장의 생각이다.

정용식 중앙신도회 특별자문은 '중앙신도회 과거와 현재'를 발표했다. 정 특별자문은 △조계종·중앙신도회 역사 △중앙신도회의 역할과 임무 △중앙신도회의 현재를 발표해 중앙신도회의 역사를 톺아보고 조직·회칙·예산 등 중앙신도회의 현재 상황을 임원들에게 설명했다.

신도 조직 대표자들의 인사와 활동 공유 시간도 이어졌다. 정재호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작년은 코로나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회장단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다시 열심히 일할 생각"이라며 "28대 집행부가 불교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봉사하고 참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입재식은 △삼귀의·반야심경 △정원주 중앙신도회장 인사말 △제21교구 본사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 치사 △포교원장 선업 스님 법문 △사홍서원 순으로 이어졌다.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은 정원식 중앙신도회장과 제28대 집행부의 공식적인 첫 상견례"라며 "다 함께 중앙신도회의 발전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불법 홍포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법상에 올라 '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법문에서 "우리는 비워낸 만큼만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여러분이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한다면 이 땅을 불국정토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간의 소통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한 선업 스님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한 가지씩의 장점은 반드시 갖고 있다. 이를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간다면 조계종을 넘어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임원진들은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의 재적사찰인 화순 개천사(주지 보원 스님)로 향했다. 개천사 천연기념물 비자나무숲길을 탐방한 임원진들은 '행복바라미 개천사 가을음악회'를 끝으로 임원 연수를 회향했다.



걸음걸음 평화통일 발원을 담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는 10월 30일 강원도 양구군 두타연과 화천 세계 평화의종 공원 일원에서 '남북화해기원 평화명상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은 "명상을 통해 마음 속 평화를 되새기고, 그것이 통일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사진은 두타연 평화누리길에서 평화명상 걷기를 하고 있는 사부대중의 모습. **강원도 양구=김가령 기자 〈현장 기사 5면〉**

종교지도자 "政·堂·醫 책임감 있는 행동을"

종지협, 10월 28일 중재 입장문
교육부 '자율 휴학' 입장 이끌어

의대 정원 증원 등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7대 종교지도자들이 정부와 의료계 중재에 나섰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10월 28일 "더 이상 국민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협의체와 관계 당국에 중재적 입장을 건의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종지협은 "종교지도자들은 의사 단체는 물론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정부와 정당, 의사단체들에게 의료대란을 종식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의대 정원은 2026년도부터 원점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기 결정된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은 각 대표 단체가 참여한 추계기구를 구성,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오직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국가가 사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대승적 화합의 장을 함께 열어 주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종교지도자들의 중재 입장문 발표 이후 교육부는 10월 29일 9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을 "종지협 등 각계 의견을 수용했다"면서 밝혔다. **임은호 기자**

본지 임은호 기자, 복지기여자 표창

종로노인복지관, '슈퍼스타종로'
주석 스님 · 이승기 배우 등 수상
전 세대 아우르는 화합의 무대도

임은호 현대불교신문 기자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공로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복지기여자 표창을 수상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스님)은 10월 31일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지역 화합 축제 '2024 슈퍼스타종로-우리가 함께 만드는 오늘'을 개최하고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 이승기 배우, 임은호 기자 등 22명에게 복지기여자 표창을 수여했다.

관장 정관 스님은 "수상하신 모든 분 축하드린다. 이번 슈퍼스타종로는 시니어뿐 아니라 종로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로 거듭났다"며 "내년에는 더 풍성한 행사를 기획해 지역 주민들에게 재미있고 행복한 추억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수상자를 대표해 주석 스님은 "나눔,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어디든 달려가는 게 부처님 제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상을 맑히고, 지역을 밝히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해 힘 보태겠다"고 말했다.



본지 임은호 기자(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복지기여자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이어진 무대발표에서는 어르신들이 무대를 꾸몄던 예년과 달리, 올해 행사에서는 어린이·고등학생·대학생·지역민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가 펼쳐졌다. **김내영 기자**

고불총림연구원 출범 기념 세미나
초대합니다
일시 2024.11.12. (화) 오후 1시 ~ 5시
장소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고불총림연구원
[대주제]
고불총림의 재조명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 문의(종무소) 061.392.7502

◉ 식순 좌장 : 미산스님(상도선원 회주)

시 간	내 용
13:00-13:20	개회 및 인사말 삼귀의 인사말씀 무공스님 (백양사 주지) 치사 진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13:20-14:00	주제 발표 주제1 고불총림의 성격과 위상 한상길 (동국대), 김상영 (중앙승가대)
14:00-14:40	주제2 고불총림과 백학명, 용성의 선농일치 이재수 (동국대), 김순석 (국학진흥원)
14:40-15:20	주제3 고불총림의 계승과 서옹대종사 금강스님 (고불총림연구원 원장), 정운스님 (대승불전연구소)
15:20-15:30	휴식
15:30-16:10	주제4 고불총림과 가야총림 김방룡 (충남대), 고영섭 (동국대)
16:10-16:50	주제5 고불총림과 봉암사결사 비교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서재영 (성철선사상연구원)
16:50-17:00	폐회사 무공스님 (백양사 주지)

韓中日 불교도들 "세계평화 위한 정진" 다짐

제2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일본 일련종 총본산 구원사 개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한국불교 대표단 80여 명 참석
10월 30일 세계평화기원법회 봉행
인류 화합 위한 불교 진일보 발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 · 중 · 일 불교도들이 일본 구원사에서 불교우호교류회의를 개최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정진을 다짐했다.

한·중·일 불교도들이 한데 모여 세계평화를 위한 정진을 다짐하는 법석을 열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는 10월 29~30일 일본 야마나시현 일련종 총본산 신연산 구원사에서 열린 '제2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일본대회'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단장으로 부회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등 협회 회원종단 중 19개 종단에서 76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인 일본에서는 이사장 타케 카쿠초 스님 등 대표단 100여 명과 중국 대표단으로 회장 연각 스님 등 80여 명 등 총 260여 명이 참석했다.

10월 30일 봉행된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국가별 기원법회에서 진우 스님은 세계평화 메시지를 통해 "불교 문화교류야말로 공존과 상생의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을 언급한 진우 스님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제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해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진리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만드는 지혜가 불교에 있으며, 인류 공영의 해법도 불교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했다. 이어 관점을 달리해 연기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서 시작되며, 그 결과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으로 오늘날 인류가 불행의 문턱을 넘나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 그 위기를 자초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인과 따라, 연기 따라 흘러간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되새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의 불교가 인류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해 더욱 진일보 하자"고 발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공영사회 구축에 있어 불교 정신의 가능성'을 주제로 학술강연회도 진행됐다.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관음종 부원장 도각 스님이 '한중일 삼국이 함께하는 미래 구상'을,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이 '공영사회 구현을 위한 불교 정의 탐색과 실천'을 주제로 발제했다.

앞서 10월 29일 열린 삼국교류위원회의에서는 25차 대회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의를 내년 3월 하순 개최키로 했다. 본 대회는 30주년을 기념하며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서로 협력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면면히 이어오는 불법의 자비심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맞는 형태로 사람들 마음에 다가서겠다"면서 "세계 평화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1995년 제1회 중국 북경대회를 시작으로 3국의 불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태고 보우 원융회통 정신, 문화와 만나다

태고종, '제13회 태고문화축제'
10월 27일 일산문화광장서 개최
예수재 설행, 문화공연 등 진행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회통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문화축제가 열렸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월 27일 일산문화광장에서 '제13회 태고문화축제'를 개최했다.〈사진〉

태고문화축제는 고려 말 분열됐던 제종을 통합했던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회통 정신을 우리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됐으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행사로 진행하는 등 꾸준히 개최돼 왔다.

'원융과 회통의 소리,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축제에는 태고종 연합합창단과 전법사회, 이상밴드의 공연으로 막이 올랐다. 특히 태고종이 자랑하는 불교의례·의식인 청련사 생전예수재와 현대의 문화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축제여서 광장을 찾은 1000여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예수재는 법회의 주인공인 부처님을 예수도량 중정으로 모시는 '괘불이운'과 지전을 명부에서 쓸 수 있는 재화로 만드는 '조전점안' 등이 이뤄졌으며, 의식을 통해 국태민안과 전생 업장 소멸을 발원했다. 예수재 후에는 가수 장하은, 송우주, 김중연, 진욱 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태고문화축제는 1700년 한국불교와 태고종 종조로 추앙받고 계시는 태고 보우 원증 국사의 원융사상을 문화축제를 통해 화합으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뜻 깊은 행사"라며 "오늘 축제를 계기로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 회통 정신이 높이 선양 되길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민과 고양시민, 국민이 함께 하는 통합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발원했다.

한편,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날 축제에서 고양시에 자비의 쌀 1000kg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가수 진욱 팬카페 '실크로드'가 태고종 발전기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신중일 기자

"10·27법난, 진상규명·피해자 명예 회복으로 치유해야"

10월 27일, 제44주년 추념문화제
진우 스님 "법난과제 해결에 최선"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제44주년 10 · 27법난 추념문화제'를 봉행했다.

1980년 10월, 신군부가 계엄포고령 위반자와 불순분자 검거를 구실로 전국의 스님과 불교계 인사들을 강제연행, 고문과 폭력을 자행한 10·27법난이 발발했다. 올해 44주년을 맞은 10·27법난의 추념문화제가 서울 봉은사에서 개최돼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기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27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에서 '제44주년 10·27법난 추념문화제'를 봉행했다. 봉은사는 '10·27법난 기념관'이 건립 예정된 곳이다.

추념문화제는 1부 추념법회와 2부 추념문화공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27법난은 단지 과거의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역사의 상처"라며 "정부는 종단과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우 스님은 "종단은 10·27법난으로 불교계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노력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뤄냈다"며 "뒤이어 봉은사에 불교계와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예우 공간 '10·27법난 기념관' 건립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장 성화 스님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사회를 도운 불교계가 겪은 10·27법난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종단은 앞으로도 44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리고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유사한 국가폭력이 되풀이되지 않게 제도적 정비, 10·27법난 진상 규명을 위한 사업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0·27법난피해자모임회장 원행 대종사는 10·27법난의 진실 규명이 불교와 사회 발전의 자양분이 되길 바라며 10·27법난 피해자들을 대표해 △정부의 공식적 대국민 사과 △지속가능한 피해자 개인 배상 방안 마련 △10·27법난 관련 서류 국민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어 원행 대종사는 "역사의 법정엔 시효가 없으며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자유는 없다"며 "불교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픔과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후학들의 과제임을 잊지 말자"고 전했다.

김가령 기자

영규대사와 800의승, 호국불교 가치 조명

불교사회연구소 학술세미나
영규대사가 남긴 호국 유산
현대적 계승 방안 심층 탐구



임진왜란 당시 청주성과 금산 전투에서 활약한 영규 대사와 800명의 의승이 역사 속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의 장이 마련됐다.〈사진〉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 스님)는 10월 31일 전법회관에서 학술세미나를 열고 의승군의 호국불교적 의의와 그 현대적 계승 방안을 탐구했다. 10월 24일 진행된 1차 학술세미나에 이어 2차 세미나는 사적을 중심으로 호국불교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할 방안을 조명했다.

첫 발표에서 김상영 동국대 명예교수는 '임진왜란 시기 의승 활동과 기허 영규'를 주제로 불교계가 임진왜란 속에서 어떻게 호국불교의 가치를 실천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철헌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는 '기허영규의 의승군 활동'을 주제로, 청주성과 금산 전투에서 영규대사와 의승군이 보여준 활약을 사료로 생생하게 복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영규대사와 800의승 현양 사업의 과제와 전망'을 발표하며 영규 대사와 의승들의 정신을 현대사회에 어떻게 계승할지에 대한 구체적 제언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연말에 논문집으로 발간되어 전국 주요 도서관과 연구소에 배포될 예정이다.

정현선 기자

2024 팔관회 Turn Toward Busan 참여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2024 팔관회는 Turn Toward Busan 행사에 함께합니다.
부산지역 전 사찰이 신성한 불음(佛音)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왕생극락 발원에 동참 바랍니다.



2024년 11월 11일 (월) 오전 11시 부산지역 전 사찰

- 사부대중이 모여 1분간 범종, 죽비, 목탁 등 법구(法具) 11타(打)
- 부처님의 법음(法音)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왕생극락 발원하는 추모 묵념

동참 방법
1. 2024년 11월 11일 오전 11시 범종, 죽비, 목탁 등의 법구를 이용하여 1분 동안 11타(打)
2. 경내 사부대중은 UN기념공원을 향해 묵념
3. 행사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여 부산불교연합회로 전송

영상전달 방법 문의 ☎ 051-867-0501
이메일 전송 story12311@naver.com ※ 지역, 사찰명 표기



턴 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Turn Toward Busan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부산유엔기념공원을 향해 한국 현지 시각에 맞추어 동시에 묵념 및 추모행사를 진행하여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고 그들을 추모하는 행사이다.

주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2024 팔관회봉행위원회
후원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자살 유족 위로법회, 무상 일깨워 치유 효과”

조계종 포교원, 종책 연찬회
‘자살 유가족 돌봄 · 치유’ 주제
성림사 현담 스님 사례 발표
3년간 유족 위로법회 봉행해
만족도 최상…“내면 위로됐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그렇게 될 때까지 가족들은 뭐 했대?”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자살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죽을 용기로 살아가면 되지!”

차가운 시선에 내몰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살 유족에게 꼭 필요한 건 떠난 이들과의 재회, 위로, 이해다. 자살 유족을 위해 3년간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위로법회)’를 봉행해온 성림사 주지 현담 스님〈사진〉은 “자살 유족의 내면을 치유하는 위로법회는 부처님의 고집멸도 사상과 생사윤회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현담 스님은 10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포교원이 개최한 제84차 포교종책 연찬회 ‘생명존중과 전법-자살 유가족 돌봄과 치유’ 발제자로 참석해 위로법회와 관련한 활동 내용과 성과를 들려줬다.

위로법회는 자살 유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2017~2019년 3차례 진행됐다. 각 법회에는 스님과 재가자 56명, 38명, 20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입재, 위로, 공감 나누기, 회향 순으로 구성됐고, 성림사 회주 광용 스님(전국비구니회장)과 현담 스님이 의식을 맡았다.

입재식에서 주관스님들은 떠난 이의 심경과 유족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발원·축원을 올린다. 법문에서도 외아들을 잃은 끼사 고따미의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부처님 말씀을 일러준다.

이어 위로의식에서는 등공양, 영가 초청 및 유족 인연자 맞이, 위패 쓰고 올리기, 자애경·자비관·회향공덕 합송으로 떠난 이를 애도·천도한다. 특히 영가 초청 및 유족 인연자 맞이는 갑작스러운 이별로 서로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으로, 슬프고 애틋한 마음을 전달한다. 위패에도 영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어 방황하는 영혼을 안주시켰다는 안도감을 준다.

‘동병상련’의 공감대를 가진 자살 유족들 간 명상을 통해 회한을 풀어내는 시간도 있다. △우선멈춤 △본명상 △역할극 △공감나누기 마무리 명상으로 자기 애착심, 집착심, 슬픔, 수치심, 미안함 등의 혼란스러운 감정과 직면하고, 상대방의 아픔도 함께 헤아려 본다. 법회는 유족이 영가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제는 집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위패 소전의식으로 마무리된다.

위로법회에 대한 자살 유족의 만족도도 높았다. 참가자 만족도 조사 통계에 따르면 ‘의식을 통해 내면을 치유하고 마음의 위로가 됐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90%, 그렇다가 10%로 나타났다. ‘의식 참가 후,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 80%, 그렇다 20%로 자살에 대한 관점에 변화가 있음이 확인됐다. “다시 한번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주변 사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법회였다”는 소감도 남겼다.

현담 스님은 “위로법회는 참여한 모든 이들이 애환과 치유를 함께 나누면서 고통받는 이들과 내가 하나임을 알고, 모든 생명은 나고 죽고 윤회한다는 본뜻을 알아차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논평을 맡은 이경애 심리상담소장은 “위로법회를 전국에 있는 사찰 스님들과 공유하고 토론과 교육을 통해 더욱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다듬어, 전국 각지 사찰에서도 위로법회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대웅전 조성 불사 ‘첫발’

10월 26일 신축부지서 기공 법회
대웅전 조성 35년 숙원사업 시작
1800평 부지에 대웅전 등 조성해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 스님)이 대웅전 불사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10월 26일 경내 대웅전 신축터에서 전국에서 참여한 사부대중 1500여 명의 염원을 담아 대웅전 기공식을 봉행했다.

1988년 10월 30일 광주시 소태동에 건물을 임대하며 첫 포교를 시작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어려운 포교 여건에서 마음공부를 시작했고, 1989년 계림동 주택으로 자리를 옮겨 마음공부를 이어갔다. 1994년에는 현재의 서구 치평동으로 옮기며 본격적으로 광주 지역 포교에 나섰다. 묘공당 대행 선사가 당시 법당 신축에 증명법사로 참여해 축원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이 10월 26일 대웅전 불사를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주인공을 찾는 도량이 될 것”을 발원했다.

이날 대웅전 기공식은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35년을 해원(解願)하는 순간이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불심이 크지 않은 지역에서 지금까지 어려운 불사를 해내고 있는 것은 광주지원 스님들과 신도님의 큰 노고가 있었다”며 “30년 전에 어려운 여건에서 현재의 법당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대웅전 불사를 원만회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혜솔 스님도 축사를 통해 “대웅전 조감도 외관을 보더라도 광주지원 스님들과 신도들의 고운 마음이 담겨있다”면서 “광주지원은 도심에 있어서 늘 누군가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주인공을 찾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법당에서 열린 사시예불에 이어 대중들은 대웅전 신축부지 기공식장으로 이동하고, 첫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삽이 진행됐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은 “큰스님께서 ‘더불어 공부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광주에 내려왔다. 광주는 힘들고 아픔이 많은 곳이어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술회했다. 이어 “씨앗은 큰스님이 뿌려주셨고, 키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그 가르침을 따라 한마음으로 대웅전 불사를 이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대웅전 불사를 위해 25년 전부터 인근 주택과 상가 등 1800여 평 부지를 확보하고, 지난 2020년 2월 대웅전 불사추진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련사 성보, 국가유산 지정 추진 ‘첫발’

태고종 총무원, 10월 26일
‘백련사 불교유산’ 학술대회

서울 삼각산 백련사(주지 동허 스님)의 역사와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태고종 총무원은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백련사 불교문화유산을 국가유산과 시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삼각산 정토백련사 불교문화유산’을 주제로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탁효정 순천대 학술연구교수는 ‘백련사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조선왕실 원당으로서 백련사의 역사를 조명했다.

탁 교수는 “백련사는 성종 대에 왕실원당으로 지정된 이래 19세기까지 계속 왕실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며 원당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나갔다”면서도 “하지만 백련사라는 사액명 대신 근현대까지도 ‘경티절(정토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서울 지역 불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명소로 각광받았다”고 밝혔다.

김수현 고양특례시 학예연구사는 ‘서울 백련사 동종 연구’를 통해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백련사 융경삼년명 동종(이하 백련사 동종)’의 문화유



백련사 융경삼년명 동종. 태고종은 국가유산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적 가치를 조명했다.

태고종 총무원은 학술대회 이후 백련사의 전통사찰 지정 추진과 더불어 ‘백련사 융경삼년명 동종’(서울시 유형문화유산)을 국가유산 ‘보물’로 승격 지정 신청을, 명부전에 봉안된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권속 일괄’(비지정)과 약사전, 대방 등에 봉안돼 있는 중요 성보문화유산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개회식에서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스님은 “백련사 불교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고 활용되고 있음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 백련사가 태고종을 대표하는 사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사노위,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행진 동참

10월 26일, 이태원역 1번 출구서
4대종교 추모식, 추모 행진 참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10월 26일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4대 종교 추모의식’에 뜻을 함께 했다.〈사진〉

추모의식에 앞서 희생자 유가족과 종교계 참가자들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해밀튼호텔 골목에 헌화하며 희생자 159명의 넋을 기렸다. 불교계에서는 사노위원 고금·덕인·시경·도승·동신·일행·법정 스님과 더불어 조희주·유금신·박정숙 사노위 재가활동가가 참석해 추모했다.

추모기도는 희생자 159명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1시 59분에 시작됐다. 사노위원



시경 스님은 “유가족과 시민분들의 힘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제정되고 관련 재판과 특별조사 위원회 출범 등이 이뤄졌다”면서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진상 규명이며, 사법부는 재판을 지켜보는 유가족과 국민이 있음을 잊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 해야한다”고 밝혔다.

추모의식을 마친 후 용산역 대통령실에서 서울광장까지 8km의 추모행진을 진행했다. 600여 명의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여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가령 기자

火中蓮華 무비큰스님 전집출간 봉정법회

금정총림 범어사 주최,명심회 주관으로 여천 무비큰스님 전집 화중연화 출간 봉정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불꽃속에 연꽃이 피어나는 화중연화’전집으로 1권 예불문,천수경,반야심경 시작으로
금강경, 법화경, 임제록강설,직지강설 ,증도가 초발심자경문,불교명구와 염화실 그림자 25권의 방대한 전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비 큰스님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있는 전집 봉행법회에 스님, 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일 시 : 2024년 11월 23일(토) 오후 2시
■ 장 소 : 범어사 보제루
■ 문 의 : 051-508-3043
■ 주관·주최 : 금정총림 범어사, 명심회

염화실TV 0907

맛보고 즐기는 수도사 힐링 축제 '피로 싹!'

수도사, 10월 26일 경내서
'원효대사문화예술제' 개최
진미령 · 이소원 · 임지민 공연
한중일 사찰음식 대향연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수도사를 찾은 지역민들은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맛과 멋이 어우러진 힐링의 공간 수도사에서 바쁜 일상에 지친 지역민들의 피로가 말끔히 씻겨 나갔다. 사찰음식의 깊은 맛과 다채로운 공연은 일상의 무게에 눌린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활력을 선물했다.

'원효대사 오도성지' 평택 수도사(주지 적문 스님)가 10월 26일 경내 해수관음전 앞 특설무대에서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체험관) 개관 7주년을 기념해 '원효대사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지친 지역주민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음악회와 사찰음식 전시회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주지 적문 스님과 정장선 평택시장, 홍기원·이병진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제를 즐겼다.

수도사 주지 적문 스님은 "21년간 수도사에서 소임을 보면서 누구보다 우리 마을, 우리 평택을 사랑하게 됐다"며 "수도사와 체험관이 한 단계 더 도약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축사에서 "2017년 개관한 체험관은 원효학당, 원효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원효 대사의 사상을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이 됐다"며 "이번 원효대사 문화예술제에서도 원효대사 깨달음의 노래를 통해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원효 대사의 사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음악회는 안중 쇠울림 풍물단의 흥겨운 풍물놀이로 힘차게 막을 올렸다. 북과 징,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참가자들은 자연스레 박수치고 장단에 맞춰 어깨를 들썩였다.

이어 조계종 연예인전법단 소속 이소원·임지민·진미령 가수가 구성진 보컬과 맛깔난 창법으로 트로트 무대를 선보였다. 세 가수의 매력 넘치는 무대에 현장은 웃음과 환호로 가득 찼고, 공연의 열기는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다. 음악회의 대미는 원효대사문화예술제 명성에 걸맞는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무애무 공연이 장식했다.

같은 날 체험관 특별전시장에서는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중·일 사찰음식 대향연' 특별전시가 진행됐다. 전시에는 사찰음식 명장 적문 스님이 직접 만든 한국불교 사찰음식을 비롯해 일본·중국 사찰음식 등 총 77점이 공개됐다. 전시장 한켠에는 시식코너를 만들어, '연자조림' '단호박깻잎튀김' '연잎차' 등의 사찰음식을 관람객들이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중·일 사찰음식 대향연 전시는 27일까지 이어졌다.

예술제에 동참한 권금순(86) 할머니는 "수도사 덕분에 공연도 즐기고, 사찰음식 전시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79돌 전국교법사단 "청소년에게 불교 씨앗 뿌리자"

10월 25일 창설 79주년 기념법회
진현 스님 등 신임 교법사 품수도


조계종 전국교법사단이 창설 79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청소년 포교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불교 종립학교 교법사들이 청소년 포교를 통한 건학이념 구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전국교법사단(단장 양동효)은 10월 25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창설 7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불교교육연합회장(동국대 총장), 양동효 전국교법사단장과 전국 종립학교 교법사, 교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치사를 통해 청소년 포교를 위한 종단적 지원을 약속했다. 선업 스님은 "한국불교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제대로 양육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있는 교법사들의 역할이 크다"면서 "조계종 역시 청소년 포교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청소년 포교를 이끌어 나가겠다. 또한 현장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재웅 불교교육연합회장은 축사에서 문화를 통한 불교 포교를 강조했다.

양동효 전국교법사단장은 "동물들은 태어나서 눈 뜨고 처음 만나는 대상을 엄마로 여긴다고 한다. 우리 학생들도 교법사를 통해 처음 불교를 만나게 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부처님이고 나의 말이 불교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수행 정진해야 한다. 어린 불자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념법회에서는 신임 교법사들의 품수식도 진행됐다. 선업 스님은 신임 교법사 진현 스님(정광고), 원경 스님(능인중), 문수 스님(능인고), 일연 김가연(광동고), 범지 송범주(광동중)에게 교법사 자격증서를 수여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불교교육연합회 임시총회와 종교 교육 연수, 제52회 교학연구발표 등도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불자배우 강부자, 은관문화훈장 수훈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서…김한민 감독, 대통령 표창


강부자


김한민

불자배우 강부자 씨가 10월 31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강 씨는 〈친정엄마와 2박3일〉 〈목욕탕집 남자들〉 등 연극, 방송, 텔레비전 드라마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끊임없는 감동을 선사해 왔다.

법명이 '보덕화'인 강 씨는 아침마다 예불을 올리고, 촬영 이동 시에도 108염주를 돌리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높은 신심으로 2007년 조계종 불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통령 표창에는 김한민 영화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이순신 3부작 〈명량(2014)〉 〈한산: 용의 출현(2022)〉 〈노량: 죽음의 바다(2023)〉을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김 감독은 북한산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과 20여 년 동안 깊은 인연을 이어가는 불자이다. 그는 원경 스님에게 '관월'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올해 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감독은 "영화감독 데뷔 전 여러 부침을 겪고 있을 때 원경 스님과 인연이 됐다. 좌선대 올라 참선하고, 심곡암에서 시나리오 작업도 했다"며 "조계사에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했고, 화계사불교대학을 다녔다. 요즘에는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관음기도를 하고 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한편, 2010년에 시작해 올해 15회차를 맞이한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의욕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의 공을 기리기 위한 정부 포상이다.

신중일 기자

호국홍익사, 불교 문화탐방 '통·신·보·안' 성료

10월 20일 강화 법왕사 · 보문사서
사찰 문화 체험, 스트레스 해소로



군장병들이 불교 문화탐방 프로그램으로 전투 스트레스를 날리고 사찰 문화를 체험했다.

호국홍익사(주지 관묵 스님,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군종실장)가 10월 20일 강화도 법왕사와 보문사를 참배하는 불교 문화탐방 프로그램 '통·신·보·안'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관묵 스님이 장병들에게 사찰 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전투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기획했다.

'통·신·보·안'은 원래 군에서 정보보안을 강조하는 용어다. 그러나 관묵 스님은 통신보안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옛 문화가 '통'하고, '신'문화를 받아들여, 함께 '보'고 느끼며, '안'고 가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으로 승화시켰다.

행사를 주관한 관묵 스님은 "장병들에게 새로운 재충전의 기회를 주어 전투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통·신·보·안'을 기획했다"며 "프로그램 후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전투력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군민(君民) 유대감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화탐방에 동참한 장병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박현욱 병장(병849기)은 "다양한 사찰을 방문하고 자연과 사찰의 조화에 감탄했다"며 "오감이 즐거웠던 문화탐방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대현 상병(병850기)도 "문화탐방에서 사진 찍고 추억을 남기니 마치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동국대 건학위, 지역미래불자장학금 수여

WISE캠 불교동아리 40명에
총 4000만원 장학금 전달해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이 WISE캠퍼스 장학생에게 단주를 전달하고 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10월 29일 동국대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D501호에서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계종 미륵암(주지 일공 스님)이 불교문화대학 불교동아리 '부루나', 스마트시티융합대학 불교동아리 '바라너지', 글로벌사회경영대학 불교동아리 '다르마' 장학생 30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대한불교서명종 원법사(주지 해운 스님)가 간호대학 불교동아리 '메타'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미륵암 주지 일공 스님은 "매순간마다 열심히 생활하여 훌륭한 동국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은 "동문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서울캠퍼스에 이어 WISE캠퍼스에도 원법사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생과 인연을 맺게 되어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오늘 장학증서를 받는 학생 여러분들은 미륵암과 원법사와 큰 인연을 맺게 되었으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동국인으로서, 한국의 미래불자로서 불교 중흥에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수서경찰서 '불심원' 첫 법회

경승실장에 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한 달 2회 정기법회로 경찰 포교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의 노력으로 5년 만에 문을 연 수서경찰서 법당 '불심원'이 첫 법회를 열고 경찰 포교의 씨앗이 싹트길 염원했다.

비구니회는 10월 25일 서울 수서경찰서 내 불심원에서 첫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불심원은 수서경찰서 내 법당으로 경찰불자들의 신행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개원했다. 경찰서가 리모델링에 들어가며 여유공간 부족으로 기존 법당이 사라진 지 5년 만에 다시 일궈낸 소중한 도량으로, 본관 3층에 자리잡았다. 경승실이기도 한 불심원이 문을 연 배경에는 특히 전국비구니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전국비구니회가 적극 나서 지원하면서 회장 광용 스님이 경승실장도 맡게 됐다.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사부대중이 불사금을 모연, 인테리어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광용 스님은 "법당 개원으로 수서경찰서 불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행활동을 펼칠수 있게 됐다"면서 "한 달에 두 번씩 정기법회를 열고 법문과 함께 개인적인 고민과 질문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전국여성불자회, "김장으로 자비 나눠요"

11월 16일 조계사 경내서
전통 계승, 자비나눔 함께

한국의 전통 월동 준비행사인 '김장'이 축제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가 11월 16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2024 김장은 축제다'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김의정 전국여성불자회장을 비롯해 전국여성불자회원 70명과 자립준비청년 30명 등 100여 명이 함께한다.

참가자들은 2000kg에 달하는 김장 재료를 각 20kg씩 나눈 뒤, 직접 김장김치를 만든다. 이 중 1300kg의 김장김치는 자립준비청년과 미혼모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비나눔을 위한 김장김치 후원도 받는다. 동참비는 김장김치 1포기당 2만원이다. 김장축제에는 개인 및 가족(3인 이내) 단위로 네이버 폼(https://naver.me/53ITVcMu)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동참비는 10만원이다. 또한 동참자들은 친환경 축제를 위해 장갑, 팔토시, 앞치마 같은 개인물품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

문의: 02-723-3330 (전국여성불자회 사무국)

김민재 기자

의성노복, 난치병 환아 의료비 지원

10월 24일, 고운사서
치료비 600만원 전달


의성노인복지관이 지역 내 난치병 환아들을 위한 의료비를 전달해 자비행을 실천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 산하 의성노인복지관(관장 휴담 스님)은 10월 24일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대웅전에서 지역 내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비 6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과 의성사암연합회장 자원 스님 등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은 주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가정에 매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가령 기자



조계종 민추본은 10월 30일 강원도 양구 두타연과 화천 평화의종 공원 일대에서 '남북화해기원 평화명상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공원에서 명상하는 사부대중의 모습.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타종하며 평화 통일을 염원했다.



이날 행사는 '평화'를 화두로 명상하며 남북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자리였다.



탐방객들이 두타연의 보덕굴을 바라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북 분단 현장, '평화 명상'으로 장엄하다

민추본 '남북화해기원 평화명상걷기' 현장을 가다

10월 30일, 강원 양구 두타연 등서
민추본 · 동국대 북한학과 등 동참해
남북접경지서 '평화 · 협력' 화두 명상
덕유 스님 "평화는 내 마음에서 시작"

'세계평화의 종' 타종…통일 미래 염원
준한 스님 "마음 평화는 곧 미래 평화"
이창희 북한학 교수, 남북관계 강의도

강원도 양구=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대북·대남 전단 살포와 확성기 갈등 등으로 남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60여 명의 사부대중이 남북접경지에서 '평화'를 화두로 명상에 잠겼다. 남북 분단의 현장에서 한반도의 적대 상황을 이해하고 내 마음 속 갈등을 해소해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자는 취지에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는 10월 30일 강원도 양구군 두타연과 화천 세계 평화의종 공원 일대에서 '남북화해기원 평화명상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남북접경지 탐방과 함께 한 명상 프로그램들로 특별함을 더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이해와 명상을 접목시켜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평화 통일'을 시도한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을 비롯해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과 신도들, 동국대 북한학과(학과장 황진태 교수)와 사회과학대 불교동아리 '템플애플' 학생 등 총 60여 명이 함께했다.

첫 목적지는 대한민국 최전방인 두타연으로 장안사와 32km 거리를 둔 금강산 가는 길목이다. 2004년까지 출입이 통제돼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생태보존지이기도 하다. 이른 새벽에 출발해 두타연에 도착한 탐방객들은 입구에서부터 "천예의 자연환경을 어서 빨리 보고 싶다" "금강산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오래 걸어도 괜찮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두타연 금강산 가는 길 걷기 명상에 앞서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은 "남북 갈등이 첨예해지는 요즘 최소한의 노력을 해보고자 '평화'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면서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진정한 평화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므로 남북접경지에서 평화와 협력에 대해 되새겨보고, 그것이 통일 실현으로 이어져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기원했다.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모두 명상"이라며 두타연 금강산 가는 길 걷기 명상을 지도했다. 탐방객들은 묵상하며 20m 높이에 이르는 두타연 기암괴석과 절벽 아래에 자리한 보덕굴을 지났다. 이들은 두타정 계곡 앞에서 평화의 염원이 북쪽의 동포에게 닿길 바라며 "평화 통일"을 외치기도 했다.

걷기 명상을 마친 김규민(20세, 동국대 북한학과) 학생은 "오늘 걷기 명상에서 '남북 관계'를 화두로 깊이 있게 생각해보았다"며 "우리가 목도한 남북 갈등 상황에서 더욱 많은 젊은 세대들이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해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탐방객들은 두타연에 이어 세계 평화의종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입구에 자리한 '평화의 종'은 전 세계 30여 개국 분쟁지역에서 보내온 총알과 포탄의 탄피를 모아 만든 종이다. 높이 4.7m, 무게 37.5m에 달하는 이 종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미래에 통일될 희망을 품고 있다. 탐방객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타종하고 종이 울리는 진동을 가까이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민추본 회원 신유식 씨는 타종을 마치고 1분여 시간 동안 종에 손과 이마를 댄 채 기도했다. 신 씨는 "어릴 적에 자유롭게 금강산 출입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남북 갈등 상황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면서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종의 울림이 멀리멀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평화의 종소리를 들은 뒤 공원에서는 준한 스님과 함께하는 명상 시간이 이어졌다. 무장한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춰 지나갈 때, 탐방객들은 좌선한 채 각자가 세운 평화의 화두에 집중했다. 앉아서 10분, 누워서 10분, 명상을 실참한 탐방객들은 저마다 마음이 고요해진 소감을 전했다.

동국대 교환학생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 킬리언 풀럼(Killian Fullam, 20세, 영국 사우스햄튼대) 학생은 "걷기 명상을 할 때 곳곳의 지뢰 주의 안내판이 무섭기도 했지만, 남북의 현 상황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좌선과 와선을 하며 내가 가진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고 한반도에 평화가 되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했다.

행사의 명상 지도자였던 준한 스님은 개개인이 마음의 평화를 찾아 통일 미래가 이뤄지길 발원했다. 스님은 "남북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사라진 것 같은 요즘, 민추본과 함께 미래 세대 불자를 양성하는 동국대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 정말 뜻 깊었다"면서 "평화 통일의 뜻을 가진 여러분부터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미래의 한반도는 더 큰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는 행사를 마무리하며 남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접경지 강화도의 주민이 나와 대남 방송 피해를 호소하며 남북 갈등 해결을 촉구한 일을 언급하며 남북 갈등의 피해는 국민이 가장 먼저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남북은 서로의 위치와 외교, 이해 관계 등을 고려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오늘과 같이 지속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외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추본은 남북·북중접경지역 평화기원순례,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등을 개최하며 불자와 일반 시민들의 통일 의식 함양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뉴스레터 'e-통일정토'를 제공해 민추본과 북한 불교계에 관한 소식을 전한다.

Bongnyeogwan Research Center for Buddhism and Culture
사단법인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2024년 학술세미나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 IV

'역사는 시작이 있고 흔적을 남긴다'

본 연구원에서는 근대 제주불교 역사 연구와 함께 왜곡된 근대 제주불교 역사를 사실의 역사로 정립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올바른 역사가 정립될 때 비로소 참신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16일 (토) 13시 30분 ~ 17시
제주 테크노파크(제주 벤처마루) 10층, 1001호 세미나실 (제주시 중앙로 217)

사단법인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 연락처 010-9185-1004



건강선물로 좋습니다
『산사품』 명품 토종꿀

『산사품』 토종꿀은 충북 괴산의 낙영산과 보개산의 사찰주변 청정산중에서 채밀.
『산사품』 토종꿀은 1년에 1회 채밀합니다.
『산사품』은 『산사 품은 명품꿀』이라는 뜻으로 『산사품 한봉원』의 브랜드입니다.

산사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사찰불사 및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사에만 전액 사용됩니다.

산사품 드시고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속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전국무료배송
- 2024년 8월 26일부터 배송가능합니다. 선착순 사전 예약 받습니다.
- 주 문 : 043) 297-2514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길 74



미소원 “지구야 미안해” 환경불자 다짐

10월 25일, 경내 미소원 법당서
제1회 환경 참회기도 회향법회

총 172명 동참…945만원 후원
즐거운 불편운동 환경실천 동참
환경 운동 위한 전국 확산 바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단법인 미소원이 10월 25일 미소원 법당에서 ‘기후위기! 건강한 지구를 위한 우리들의 실천 제1회 환경 참회기도’를 봉행했다.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보살 미소원 불자들이 지구환경을 위한 ‘환경보살’로 거듭났다.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은 10월 25일 미소원 법당에서 ‘기후위기! 건강한 지구를 위한 우리들의 실천 제1회 환경 참회기도’를 봉행했다.

환경참회기도는 생명 공존을 위한 미소원 불자들의 다짐과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인류의 과오를 참회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미소원은 매년 10월 ‘수자 영가 참회 기도’를 봉행하며 수익금 일체를 난치병 환자 희망 기금으로 생명나눔 실천에 희사해 왔다. 올해는 파괴된 환경으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생명을 위한 기도로 참회의 마음을 담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기도에 앞서 미소원은 지구 환경을 위한 ‘기후 변화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즐거운 불편운동’을 실천했다.

즐거운 불편운동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비닐사용 최대한 줄이기’ ‘빈그릇 운동’ 등 지구 환경을 위한 실천 운동이며 모든 미소원 불자들은 환경 보살로 실천에 앞장서왔다.

참회기도에는 스님 6명을 포함해 총 172명이 동참했으며 십시일반 환경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기도 회향일 기준 총 945만 원이 모금됐으며, 후원금은 11월 9일 미소원 개원 13주년을 맞아 부산불교환경연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환경참회기도 회향에는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과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이 직접 참여해 이끌었다. 안도 스님은 현재 부산불교환경연대를 통해 녹색불교 아카데미와 다양한 환경운동을 통해 소욕지족과 생명존중 사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은 부산 녹색사찰 1호로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수막을 재활용해 에코백을 만드는 등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다.

안도 스님은 기도 회향 후 “숨 쉬는 이 순간에 공기의 역할만 알아도 자연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며 “오늘 미소원의 참회기도는 모든 만물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소중한 불사”라고 격려했다.

정찬 스님은 “도림사에서는 현수막을 잘라 에코백을 만들고 보급하고 있으며 일회용이 없는 삶의 실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하다. 자연을 지키는 환경보살로 노력하는 미소원의 활동이 무엇보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미소원은 부산불교환경연대 창립 이전부터 환경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부산불교환경연대 창립 후 적극적인 지원으로 동참해왔다. 지난 2023년 11월 11일 열린 미소원 창립기념법회에서 불교환경연대 녹색사찰로 등록하고 환경을 위한 수호신장이 될 것을 서원했다.

미소원 회원들은 부산불교환경연대 아카데미에 등록하고 전문교육에 동참했으며 도림사 에코백 제작, 낙동강 생태 탐방 및 겨울 철새 먹이 주기, 복날 채식 캠페인 환경을 위한 신문봉투 만들기 등 다양한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나래문화재단·부산교육청, 라오스에 책걸상 지원

10월 25일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실
학생용 책걸상 500세트 등 지원



(사)한나래문화재단이 10월 25일 부산시교육청 3층에서 ‘학생용 책걸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 스님)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라오스 학생들을 위해 공동지원 사업을 펼친다.

(사)한나래문화재단은 10월 25일 부산시교육청 3층에서 ‘학생용 책걸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업무협약식은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위치한 국립대학 수파누봉대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진행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용 책걸상 500세트를 지원한다. (사)한나래문화재단은 책걸상 수거 및 반출 등 운송 및 전달을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에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자 홍법사 신도회장인 양재생 회장이 운송비용을 일체 담당해 훈훈함을 더했다. 이사장 심산 스님은 오는 11월 18일 라오스 수파누봉대를 방문하고 전달식을 개최해 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심산 스님은 “라오스 내 한국어과는 수도와 수파누봉대 두 곳이 유일하며 국가 간 교류와 화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학생들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소식에 큰 마음을 내어주신 교육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책걸상 뿐 아니라 빔 프로젝트 및 컴퓨터 등 지원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 검토중이다”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나래문화재단과 수파누봉대의 교류는 2022년 8월에 개최한 ‘도전 한글 골든벨 협약’에서 시작됐다. 협약은 라오스 비엔티엔 국립대에 이어 두 번째이며 2022년 12월에 골든벨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한나래문화재단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수상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행사도 마련해 지속적인 교류와 인재불사를 이어오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삼광사, 공무원 템플스테이로 마음 챙김

10월 29일, 경내 극락전서
부산진구 공무원 · 직장인 대상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영제스님)가 10월 29일 경내 극락전에서 ‘천태신행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참여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부산진구청과 교육청, 주민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스트레스 해소와 직무소진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10월 24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60여 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싱잉볼 명상과 다도 등에 동참해 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며, 수지 지압 아로마테라피 및 지화(연꽃등)만들기 등 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강어진 사회복지사(30)는 “민원을 응대하는 업무적 스트레스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는데, 이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짧지만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명상법을 알게 되었고, 사찰에서 진행해 더 편안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천태신행 템플스테이는 현대인에 맞는 명상법을 안내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힐링을 체험하도록 돕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범어사, ‘삼국유사’ 체험의 장

10월 24일~27일, 부산 벡스코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부스 성황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이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회 박물관·미술관 박람회’에 참여했다.〈사진〉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삼국유사’를 테마로 체험부스를 운영했으며 사찰 박물관 가운데 유일하게 참여해 시민들에게 성보의 소중한 가치를 한층 더 친밀하게 전했다는 평가다.

특히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유 문화재인 ‘삼국유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으로 중요도가 높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체험부스를 방문한 시민들은 삼국유사 영인본을 직접 만지고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삼국유사 권5 ‘의상전교’ 인경 체험도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맑은소리맑은나라, 새로운 보금자리로

25주년 기념 및 이전 개원법회
개관기념 권시숙 작가 초대전도

맑은소리맑은나라는 11월 10일 오후 2시 갤러리 코스모스에서 창립25주년 기념 및 이전법회를 봉행한다. 특히 갤러리 코스모스를 개관하며 문화포교에 새로운 역량을 더한다.

행사는 1부 축하무대로 홍승아 첼리스트와 성악가 김재섭과 비뮤티의 무대가 펼쳐지며 2부는 2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3부는 갤러리 코스모스 개관 특별전으로 권시숙 석채화가의 초대전이 열린다.

1999년 11월 문서포교를 위해 창간된 맑은소리맑은나라는 이듬해 2000년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를 설립해 새로운 불교 출판사로 출발했다. 이후 〈등불〉 〈축서사〉 등 불교계 사보를 발간하고 불서 전문 출판사로 성장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 봉

종도일동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KBB한국불교방송신문, 월간시사뉴스, KBB한국불교방송자문위원회, KBB한국불교방송불자총연합천불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본산
총무원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문경백봉사 전화 1577-1016, 054)571-6973,1030(협의회) / 팩스 054)571-7498
방송국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전화 1670-2010

전북불교환경대 출범 "환경보살 되겠습니다"

전북불교회관서 창립법회 봉행
창립준비위 발족 5년 만에 결실
상임대표 미소사 주지 종범 스님
"모든 생물 연대하며 수행할 것"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불교환경연대는 10월 27일 전북불교회관 큰 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전북지역 생태계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보전 운동을 펼칠 '전북불교환경연대'가 출범했다.

전북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종범 스님, 고창 미소사 회주)는 10월 27일 전북불교회관 큰 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출범식은 2019년 7월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지 5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전북불교환경연대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전북불교환경연대의 출범은 환경보살이 되겠다는 참회와 서원"이라며 "동체대비의 큰 가르침을 좌표로 삼아 마음을 맑히고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환경보살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서원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전북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종범 스님에게 임명장과 지부등록증을 전달했다. 이어 종범 스님은 전북불교환경연대 무여 스님, 동산 스님, 남궁선, 김경숙 공동대표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상임대표 종범 스님은 취임사에서 환경문제는 인류 전체의 문제로 커져 '생물 대멸종'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전북불교환경연대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인간을 넘어 모든 생물종과 깊이 연대하고 이 위기 속에서 바른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지구는 인간만의 공간이 아닌데도, 인간들의 전유물처럼 소유하고 지배하고 파괴해 왔다"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실상을 바로 보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을 보호하는 불교의 생명존중 전통은 이 시대의 가르침"이라고 역설한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위기의 순간 전북 지역 생태계를 보전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계가 나서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축하 무대에서는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불러 박수를 받았다. 울산불교환경연대 회원들의 숟가락 난타, 전북불교회관 바라밀 합창단의 찬불가와 불교환경연대 주제곡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를 합창해 전북불교환경연대의 출범을 축하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전북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종범 스님, 공동대표 무여 스님, 울산지부 상임대표 천도 스님, 광주·전남 상임대표 해청 스님, 부산지부 공동대표 안도 스님, 금산사 포교국장 효진 스님, 김제 청룡사 주지 보현 스님 등 스님들과 남궁선·김경숙 공동대표,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안호영 국회의원, 유남희·이정현 전북환경연합 공동대표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고불총림연구원' 출범 세미나 열린다

11월 12일 '고불총림의 재조명' 주제로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11월 1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고불총림연구원 출범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불총림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고불총림의 면면을 조명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불총림의 성격과 위상(한상길·동국대) △고불총림과 백학명, 용성의 선농일치(이재수·동국대) △고불총림의 계승과 서옹 대종사(금강 스님·고불총림연구원장) △고불총림과 가야총림(김방룡·충남대) △고불총림과 봉암사 결사 비교(김광식·대각사상연구원)가 발표된다.

신중일 기자

선암사, 대각 국사 탄신 다례재

10월 30일 법맥상속식도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승범 스님)는 10월 30일 경내 만세루에서 '대각국사 탄신 969주년 다례 및 합동건당(법맥상속)식'을 봉행했다.〈사진〉

행사에는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원로의장 난파 스님, 주지 승범 스님, 중앙원로의장 호명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다례재 이후에는 호명 스님과 승범 스님에 대한 합동 건당식도 봉행됐다. 이날 호명 스님은 지선, 정각, 대공, 지덕 스님에게 법맥을 전하고, 승범 스님은 관진 스님에게 법맥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원광대 불교동아리, '如蓮'으로 재탄생

10월 29일 익산 관음사서 출범식
3월부터 창립 준비, 불교활동 전개



익산 원광대 불교동아리 '여연'은 10월 29일 익산 관음사 대웅전에서 재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원광대 불교동아리가 재창립 법회를 봉행하고 '연꽃과 같이(如蓮)' 다시 피어났다.

익산 원광대 불교동아리 '여연'은 10월 29일 익산 관음사 대웅전에서 재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동아리 지도법사 덕림 스님(관음사 주지), 심곡사 주지 정안 스님, 천고사 주지 우경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미종 지도교수, 정완섭 대불련원광지부동문회장, 최종인 동문(한서대 교수), 문건우 여연 회장(원광대 교육학과 23학번) 등 사부대중 20여 명이 동참했다.

원광대 불교동아리 여연은 학기 초인 지난 3월부터 창립 준비 모임을 열고 다양한 불교 활동을 진행했다. 칠불사·금산사 템플스테이 참여하고 매월 2차례 독서모임을 하는 등 불교 동아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했다. 불교동아리 회원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이날 출범식을 열게 됐다.

지도법사 덕림 스님은 인사말에서 "원광대 불교동아리가 '연꽃 같다'라는 의미가 있는 여연(如蓮)이라는 이름으로 재창립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회원 여러분들이 불교를 일으켜 주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정안 스님과 우경 스님도 "학생들이 불교를 접하고 배우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불교동아리 여연이 원광대 학생들의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미종 지도교수는 "처음 동아리를 창립할 때, 가능할지 의심했지만 처음 가입한 학생들에게 힘을 얻어 여기까지 왔다"며 "부처님의 40여 년간의 전법을 생각하며 학생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지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삼태리마애불 보물 지정 60년 음악회

태학사, 경내 특설무대서



천안 태학사(주지 법연 스님)가 10월 26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삼태리마애불 보물지정 60주년 기념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보물 삼태리마애불의 존재를 다시금 지역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천불사 주지 인경스님, 홍성 관음사 원철 스님(태고종 세종·충남교무 종무원장), 천안 승천사 원공 스님 등 스님들과 이정문·이재관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등 지역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사천 선암사, 영산수륙재 봉행

10월 26일 특별법단서



사천 선암사가 창건주 이여래장 보살과 이상현 대인의 공덕을 기리는 영산수륙재를 봉행했다.

사천 선암사(주지 도각 스님)가 10월 26일 경내 대웅전 앞 특별법단에서 영산수륙재 및 승보공양 법회를 설행했다. 이날 법회는 선암사를 창건한 여래장 보살의 포교원력과 이상현 대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영산수륙재는 국가무형유산 아랫녘수륙보존회(이사장 석봉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이어 기념법회와 승보공양, 어울림 한마당이 이어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법보종찰 해인사 보살계 수계법회

10월 25~26일 금강계단서

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합천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10월 25~26일 양일간 경내 금강계단에서 '제64회 보살계 수계 법회'와 '사천왕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첫날에는 보경당에서 해인삼매를 주제로 한 법문을 청취한 뒤 철야정진을 이어나갔다. 이튿날은 경내 대적광전 금강계단에서 전계아사리 태허 무관 대종사, 갈마 아사리 율주 경성 스님, 교수 아사리 율원장 금강 스님을 삼사(三師)로, 혜문 대종사, 태원 대종사, 반야 스님, 천은 스님, 도오 스님, 원타 스님이 칠증사(七證師)을 맡아 보살계 수계법회가 설행됐다.

이날 동참한 2000여 불자들은 참회진언을 염송하며 스님들에게 연비의식을 받았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보살계 수계법회와 사천왕상 봉안 불사에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불보살님과 신장님들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10돌 마하위하라 "모두의 안식처 되길"

10월 27일 경내 일원에서
창건 10돌 기념법회 봉행
가사, 음식 공양도 진행돼


마하위하가 10월 27일 경내 일원에서 창건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스리랑카 사찰 마하위하라의 창건 10주년을 기념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아산 마하위하라(주지 담마끼띠 스님)는 10월 27일 경내에서 창건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마하위하라 고문 공운 스님, 구암사 회주 북천 스님,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 계룡 대원사 주지 석용 스님 등 스님들과 파나보크 주한 스리랑카 대사, 최원영 정의평화불교연대 및 스리랑카와 한국불자 1000여 명이 함께했다.

사찰 입구에 조성한 사자상 개막을 시작으로 법회는 막을 올렸다. 초기불교 전통에 따라 안거를 끝낸 스님에게 가사(袈裟)를 공양하는 '까티나 법회'가 설행됐다. 또한 스리랑카 불교 전통에 따라 스님들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의식에 동참자 모두가 참여했다.

이어 스리랑카 어린이들의 전통축하공연, 내빈축사, 보리수 감사패 전달, 자애경 독송 순으로 법회는 마무리됐다.

담마끼띠 스님은 "셀 수 없이 많은 분에게 도움을 받아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여러분께 받은 공덕은 이 사회를 위해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오는 11월 전라남도 나주에 분원을 개원해 이주민들에게 불법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도일 스님 탄신 101주년 추모다례재

10월 25일 칠곡 각황사서



(사)세계불교교황청 총본산 각황사가 우각당 도일 스님 탄신을 기리는 법석을 마련했다. 칠곡 각황사(청장 능인 스님)는 10월 25일 우각당 도일 스님 탄신 101주년을 기리는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세계불교교황청 청장 능인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도일 스님은 교화의 길을 닦아 후학들을 이끄셨다"며 "부처님 법이 바로서야 세상이 바로 선다고 하신 말씀을 거듭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생명 살리는 생태방생법회 열리다

지구기족생명살림, 운부암서
생명살림 운동본부 현판식도


판식을 진행했다.〈사진〉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을 통해 지구촌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지구가족생명살림 생태방생 법회'가 봉행됐다.

지구가족생명살림(대표 혜진 스님)은 은해사 운부암(감원 불산 스님)과 함께 10월 26일 운부암 대종지에서 '제3회 지구가족생명살림 생태방생법회'와 지구가족생명살림 운동본부 현

이날 방생법회는 운부암 역대 조사 다례재를 시작으로 △선다명상 △수륙재 △공양기도 △방생 △관음정근 △관음무 △기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은 팔정도를 상징하는 8마리의 잉어와 15kg 상당의 미꾸라지를 방생했다.

이어 보하루에서는 운부암 불산 스님 법문, '지구가족생명살림 운동본부 사무실' 현판식 등이 진행됐다. 불산 스님은 법문에서 "생명위기와 기후위기를 불교가 극복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며 "일체중생이 모두 평등하고 소중한 생명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설했다.

이어 운동본부 사무실 현판식에서는 생명살림 실천 지침서인 〈혜지반야경〉과 '지구가족 행복기도' 봉헌식이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예순부터 백세까지' 합동축하법회

각원사 경내 대웅보전서



천안 각원사(주지 대원 스님)는 10월 26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환갑, 칠순, 팔순, 구순, 상수(100세)의 불자들을 초청해 '제2회 합동축하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각원사 주지 대원 스님은 "사는 데 만 급급하지 말고, 돌아보면서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北, 불교 유행…호신불·불단 보급 확산

불상 1구 약 1달러에 행상서 판매돼
쌀 3kg 값에도 불상 모시기 유행중
기독교는 처벌…불교 제한적 허용
거주지역 사찰에 불공 드리기도

박영빈 객원기자


남북협력으로 복원해 개성 영통사에 봉안된 불상. 사진출처=RFA

국민의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북한에서 호신불을 소지하거나 가정에 불단을 둔 주민이 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미국 'RFA(자유 아시아 방송, Radio Free Asia)'와 일본 '데일리 NK 재팬'은 현지 소식통의 정보를 인용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는 불교에 대해 보도했다.

평안남도의 정보통은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손바닥 크기의 불상을 집에 모시거나, 품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매일 아침 행상인이 가정을 방문하며 1구에 약 1.17달러인 불상을 판다"고 밝혔다.

RFA 측은 "불상의 가격은 북한에서는 쌀 3kg을 살 수 있는 가격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라며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사람들조차 쌀을 사는 데 쓸 돈으로 불상을 산다. 사람들은 집에 불상을 모시면 불운이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에 '데일리 NK 재팬'은 "원래 북한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강세였던 지역"이라며 "북한 정권이 성립된 이후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앞잡이인 반동종교'라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받는데, 성경이나 십자가와 같은 기독교의 신앙상징물의 경우 소지만으로도 북한에서는 범죄로 간주한다. 북한에선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문, 강제 노역, 투옥, 처형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상 판매가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 "불교의 경우 매우 제한적이나 허용돼 적발되더라도 엄격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북한 현지 정보통은 평양 근교 평성시에서도 불상을 모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은 본인 역시 집에 불상이 있다고 밝히며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기 전에 불상을 보고 하루가 무탈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상을 산 사람들 모두 불운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사업이 더 잘 되길 바란다"며 "종교적인 이유로 불상을 모시는 경우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정보통은 불상의 출처에 대해 "도자기 공장의 노동자들이 몰래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자기 공장의 숙련공들이 황토로 불상을 성형하고, 각 집에 설치된 작은 가마에서 굽고 노란색이나 금색으로 칠해서 행상인들에게 넘긴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거주 지역 주변에 사찰이 남아 있는 경우 노인들이 땔감이나 나물 등을 구하러 간다는 핑계로 사찰을 참배하고 불공을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 모인 청년 불자들, 사회 변화 모색 다짐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 개최
16개국 청년 한자리서 논의


대만에서 열린 국제 청년 보살 프로그램 개막식 기념촬영. 사진출처=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가 대만 홍서불교학원과 협력해 사회 변화를 모색하는 국제 청년 보살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25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의 국제 청년 보살 프로그램개최 소식을 전했다.

국제 청년 보살 프로그램은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영적 회복과 사회적 변화'를 주제로 진행해 16개국의 청년 불교 지도자와 사회 활동가 27명이 참가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대만 홍서불교학원과 함께 개최한 국제 청년 보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사회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자신감 함양과 역량 개발, 실천을 목표로 한다"며 "자애와 연민, 자비의 가치를 중심으로 불교의 사회참여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프로그램의 목적을 밝혔다.

국제 청년 보살 프로그램은 지적·영적·육체적 실천불교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불교 토론, 공동체 구축 활동, 명상 수행은 물론 대만 시민사회단체, 정부 기관, 불교기관 등이 현장을 방문해 청년 불자의 사회 참여 기회와 도전, 불자 및 사회 활동가들의 역할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사성제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바탕으로 사회 구조와 제도적 힘의 원천을 분석하고 청년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조사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아시아 및 기타 국가의 청년 및 노인, 교사, 자원봉사자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자국과 지역사회와 참여불교 연결법을 고민했다. 이어서 지역사회 기여와 미래 리더십 종합 육성 계획 마련에 나섰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시대를 초월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 불자를 비롯한 전 세계 청년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는 1989년 태국 술락 시바락사 교수를 필두로 불교 지도자와 학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불교계와 이웃종교 간 대화, 협력, 연결을 증진하고 인권, 분쟁 해결, 환경 위기 등 국제 쟁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여성 불교지도자 노사·도온, 美서 탄생 '화제'

일본 임제종 여성 지도자 탄생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것" 다짐


린센 스님이 카렌 스님의 노사 · 도온 인가증명을 축하하며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출처=톨레도블레이드

미국 오하이오 주 일본 불교 사원에서 노사와 도온이 탄생해 화제다.

지난 10월 24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Buddhistdoor Global)'은 톨레도 사원의 노사·도온 인가증명 의식 봉행 소식을 전했다.

일본 선불교 임제종의 말사인 톨레도 사원에서 카렌 도온 웨이크 스님의 노사(老師)·도온 인가증명 의식이 봉행됐다. 달마 전승을 받은 카렌 스님은 임제종 계보에서 희귀한 여성 노사이자 88대 도온이 됐다. 노사는 일본 선종에서 사찰을 이끌며 제자를 지도하는 수행자를 뜻하고 도온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에게 부여되는 칭호다.

카렌 스님은 "수십 년간 부처님 가르침을 구하고 펼치며 승가와 공동체 없이는 선생님도 없다고 생각했다"며 "일본 선종 전통에 따르면 도온은 완전한 인간 부처로 간주된다.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로 여러분과 기꺼이 소통하고 부처님 법을 등불 삼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밝혔다.

린센 스님은 "미국 전역에서 노사 칭호를 받은 여성은 굉장히 드물다. 특히 X세대의 노사는 거의 없다"며 "카렌 스님의 노사 인가증명은 여성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예시이자 지역 사회와 세상을 위한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했다.

톨레도 사원의 켈리 스님은 "함께 수행한 카렌 스님이 두 가지 칭호를 얻었다. 선 수행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며 "톨레도 사원에 두 명의 노사가 있기에 더욱 깊고 풍요로운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英 불교계, 인도 고고학 아버지를 기리다

10월 26일, 런던서 추모법요
알렉산더 커닝햄 업적 재조명


커닝햄경의 묘소에 헌화한 법요식 참가자들. 사진출처=더 선데이 타임즈

인도 불교유적에서 고고학적 발굴과 조사를 처음 실시한 알렉산더 커닝햄 경을 기리는 추도법요가 런던에서 봉행됐다. 영국의 '더 선데이 타임즈(The Sunday Times)'는 10월 27일 런던 현지에서 봉행된 추도법요에 대해 보도했다.

10월 26일 런던 불교계 인사들이 켄살 그린 묘지의 알렉산더 커닝햄 경 묘소를 방문해 법요식을 가졌다.

법요식에서는 커닝햄 경이 인도에서 이뤄낸 고고학적 업적에 대한 요약이 낭독됐다. 알렉산더 커닝햄 경은 1883년 영국 치하의 인도에서 벵골 공병대의 중위로 캘커타에 부임했다. 이후 서구학계에 아쇼카 왕을 알린 동양학자 제임스 프린셉과 인연을 맺으며 인도 고고학 연구에 몰두했다.

커닝햄 경은 산스크리트어를 수학하고 중국에서 인도를 순례한 구법승 법현과 현장 삼장의 흔적을 추적했다. 1851년에는 산치의 불교 유적지들과 사리탑들을 조사한 후 조사 보고서를 출판 했는데 이는 인도 불교역사에서 고고학 증거를 포함한 최초의 조사 보고서로 꼽힌다.

커닝햄 경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부다가야를 조사하고 세계에 알린 일이다. 날란다 대학유적, 쿠시나가라 열반당, 사위성 유적 등은 모두 그가 발견하고 조사한 곳이다. 1885년 은퇴하여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불교 유적지들에 대한 책들을 출판하면서 현대에 '인도 고고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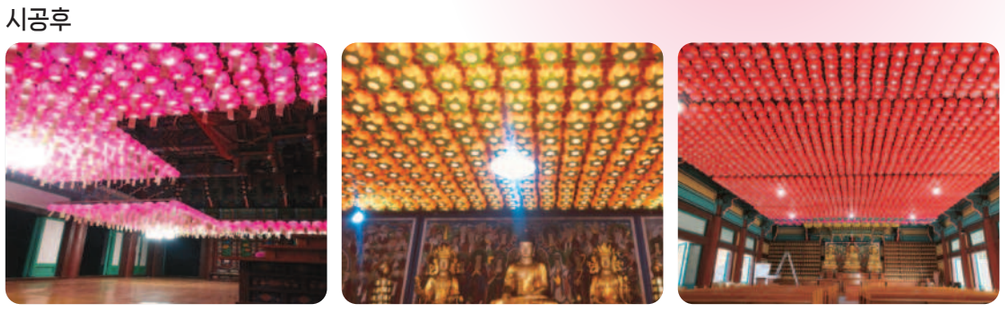
이날 추도법요식에서 실라위말라 스님은 커닝햄 경의 묘소에 헌화하고, 빨리어로 법요식을 진행했다. 스님은 "커닝햄 경은 뛰어난 고고학적 업적들을 남겼으나, 불교도들에게는 성지들을 다시금 방문해 부처님의 흔적을 볼 수 있게 해준 은인"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더 선데이 타임즈'는 "런던의 불교도들이 공식적으로 커닝햄 경을 기린 법요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법요식에는 생전 그와 깊은 인연이 있는 마하보디협회도 함께 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설치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비연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칼라연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존엄사, 불교적 해법은…"불살생계 유연한 해석을"

한국불교학회 10월 29일 학술대회
'존엄사' 주제… 불교적 대안 모색
무의미한 생명연장, 자비롭지 않아
"상황 따른 자비적 계율 해석 필요"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모든 존재의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정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을 유발한다면 불살생계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적 논쟁을 존엄사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일윤 스님(경희대 철학과 박사과정)이 밝힌 주장 중 일부다.

10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안락사 등 존엄사를 불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들이 이어졌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 불교는 안락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일윤 스님은 불살생 계율의 본질을 고찰하며 생명을 무조건 연장하는 것이 자비로운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일윤 스님은 "불교 윤리의 본질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의 행복과 고통의 경감을 포함한 포괄적인 생명 존중을 목표로 한다"며 "불살생 계율이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가르침이지만 고통 속에서 삶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교가 생명의 연속성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의 행복과 고통 경감을 중시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연장되는 생명은 삶의 본래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현희 한국외대 철학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은 "불교의 불살생 계율이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고통을 겪는 생명에 대해서는 자비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오 연구원은 "자비와 연민을 바탕으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윤리적 차원에서 불교가 안락사를 수용할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면서 "이는 개인의 삶의 마지막 단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중요한 윤리적 원칙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김미정 명상심리상담사는 불교적 관점에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톨스토이의 작품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인용하며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닌 고통을 덜어주는 영적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가 죽음을 삶의 연속으로 이해하며 호스피스와 같은 영적 돌봄을 통해 평온한 마무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교계에서도 영적 돌봄과 호스피스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위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불교 교리를 기반으로 한 호스피스 및 간병 교육 체계의 도입과 확대를 제안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양영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발적 단식존엄사(VSED)'를 현대 불교적 관점에서 존엄사의 대안으로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VSED는 외부 의학적 도움 없이 스스로 음식을 끊는 방식으로 서구에서 안락사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힌 양 연구원은 자이나교의 '살레카나'와 VSED의 유사성도 언급했다. 살레카나는 자이나교 신자들이 생의 말기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단식과 명상으로 죽음에 이르는 임종 수행이다.

양 연구원은 "살레카나가 개인의 의지와 가족의 지지 속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며 "한국 사회의 고독사와 높은 자살률 문제를 지적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조 강연을 맡은 자현 스님은 "불교가 존엄사 문제를 가장 깊이 다룰 수 있는 종교"라고 주장했다. 자현 스님은 "'생명은 내 것이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고통 속에서 생명을 무리하게 연장하기보다 개인 의지에 따라 평온히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현 스님은 "불교는 죽음을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을 존중하고 고통을 줄이는 자비의 가르침을 중시하기 때문에 존엄사 논의를 깊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주 회암사지 유물 본격 과학 분석 돌입

문화유산硏 · 회암사지博 10월 25일 업무협약 체결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오른 '양주 회암사지'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다각도로 조사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10월 25일 '양주 회암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은 회암사지 유물의 체계적 연구를 통해 사찰이 지닌 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회암사지 출토 유물의 학제적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려 중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번영했던 양주 회암사지는 14세기 동아시아 불교 선종 문화가 꽃핀 중요한 사찰로, 지금까지 총 13차례의 발굴을 통해 영락장식, 소조불, 청기와 등 다수의 유물이 발굴됐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유물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고 석재와 청기와, 금속 유물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양주 회암사지의 가치를 심화할 계획이다.

정현선 기자

조선 불화·고려 석탑, 국보 지정된다

국가유산청 10월 31일 지정 예고
해인사 영산회상도 등 불화 2점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대상 성보
선림원지 불상 등 4건 보물 예고



사진 왼쪽부터 국보로 지정예고된 해인사 영산회상도, 직지사 석가여래삼불도 중 영산회상도,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조선 후기 후불탱화인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와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이 국보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조선 후기 후불도인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와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 고려 후기 백제계 석탑인 마곡사 오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1997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는 화면 하단의 화기(畵記)를 통해 1729년(조선 영조 5)이라는 제작 연대와 의겸(義謙)을 비롯, 여성(汝性), 행종(幸宗), 민희(敏熙), 말인(抹仁) 등 화승(畵僧)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이다. 이 가운데 제작 책임자 격인 의겸을 붓의 신선인 '호선(毫仙)'이라는 특별한 호칭으로 기록해 그의 뛰어난 기량을 짐작할 수 있다.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는 1980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조선 후기 후불도로 △중앙의 영산회상도 △좌측의 약사여래설법도 △우측의 아미타여래설법도 3폭으로 구성돼 있다. 현존 삼불회도 중 3폭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작품으로, 세관(世冠)을 비롯, 신각(神覺), 밀기(密機) 등의 화승들이 1744년(조선 영조 20) 완성해 직지사 대웅전에 봉안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공간적 삼불회도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불화로, 장대한 크기에 수많은 등장인물을 섬세하고 유려한 필치로 장중하게 그려냈다. 3폭 모두 사방 테두리 부분에 〈조상경(造像經)〉에 근거한 원형의 범자문 진언을 배치하여 상징성을 부여한 점도 주목된다.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은 고려 후기에 조성된 5층 석탑으로, '풍마동(風磨銅)'이라고도 불린다. 길이 1.8m의 금동보탑을 옥개석 위에 올려 이른바 '탑 위에 탑'을 쌓은 매우 특수한 양식을 갖췄다. 특히 금동보탑은 중국 원나라 등에서 유행했던 불탑양식을 재현하고 있으며, 제작기법이 정교하고 기술적,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나다. 특히 당시 불교문화의 국제적인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2중으로 조성된 석탑의 기단은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백제계 석탑 양식을 보이며, 석탑 지대석에는 게의 눈과 같은 형상의 곡선 모양을 일컫는 해목형 안상(蟹目形 眼象)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현존하는 석탑에서 최초로 발견된 사례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화성 용주사 감로왕도,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

신중일 기자

웹툰 '세화, 가는 길' 오늘의 우리만화 선정

사찰음식 주제… 치유 전해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감성 웹툰 '세화, 가는 길'이 2024년 '오늘의 우리만화'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신일숙)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0월 21일 올해 '오늘의 우리만화' 수상작으로 '세화, 가는 길' '똑 닮은 딸' '부르다가 내가 죽을 여자뮤지션' '헤매기의 피곤과 즐거움' '황제와 여기사' 등 5편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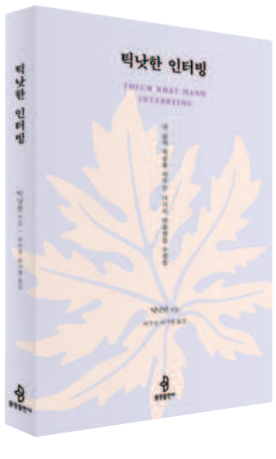
'세화, 가는 길'은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은 주인공 세화가 상실감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다가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찰 세화사에서 사찰음식을 맛보게 되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오늘의 우리만화' 선정위원회는 '세화, 가는 길'에 대해 "사찰음식을 통해 위로와 쉼을 전달하며 옴니버스 형식으로 각기 다른 화자들의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점이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정현선 기자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세상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틱낫한 스님이 알려주는 의식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위한 14가지 마음챙김 수행 지침서



내 삶과 세상을 바꾸는 14가지 마음챙김 수행법

틱낫한 인터빙

틱낫한 지음
허우성·허주형 옮김
264쪽 | 18,000원

『축의 시대』·『신의 역사』 저자 세계적인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

그가 종교, 문화, 역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풀어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두 가지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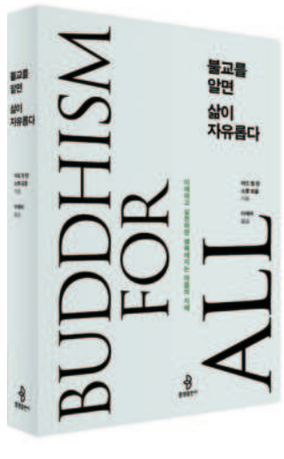
이기적 본능을 넘어서는 공감의 힘

상처 주지 않을 결심

카렌 암스트롱 지음
권혁 옮김
264쪽 | 20,000원

세계 엘리트들이 먼저 알아본 불교의 가치!

세계 유수의 기업에 명상 열풍을 일으킨 구글 '내면검색 프로그램'의 핵심, 거기에 마음의 과학 '불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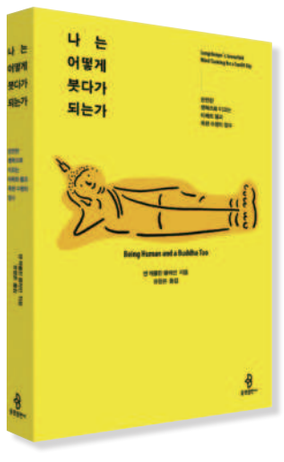
이해하고 실천하면 행복해지는 마음의 지혜

불교를 알면 삶이 자유롭다

차드 멩 탄·소류 포올 지음
이재석 옮김
516쪽 | 25,000원

완벽한 자신과 마주하는 평생의 통찰!

티베트 불교 수행의 정점인 족첸에서 무상·인과·죽음을 꿰뚫는 가장 명료한 지혜를 얻다!



완벽한 행복으로 이끄는 티베트 불교 족첸 수행의 정수

나 는 어떻게 붓다가 되는가

앤 캐롤린 클라인 지음
유정은 옮김
392쪽 | 23,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30~1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옷을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68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화:마음의불꽃을식히는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4	일상에서의호흡명상숨(빨리어호흡관법경강의)	래리 로젠버그/미산 한언	
5	어싱: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6	철학으로서의불교(대원불교학술총서09)	마크 시더리츠	운주사
7	주희철학사상의불교적뿌리(대원불교학술총서19)	존 메이컴 엮음	운주사
8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9	초기불교이해	각묵 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10	붓다연대기:완전한분붓다의위대한삶과가르침	이학종	불광출판사

책세상

'과학철학자'가 과학·철학으로 푼 '불교'



불교, 과학과 철학을 만나다

김용정 지음 윤용택 엮음
장경각 / 3만원



1세대 칸트 전공자 김용정 학문 책으로
생전에 남긴 강의녹취 · 글 찾아내 묶어
과학 · 철학 통해 불교 진리 이야기해
실린 글들 20~50여 년 전에 쓰인 것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유의미 · 유효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과학과 철학으로 불교를 이야기한다. 〈불교, 과학과 철학을 만나다〉는 우리나라 1세대 칸트 전공 과학철학자로 불리는 김용정(1930~2019) 교수〈사진〉가 남긴 강의와 글을 제자 윤용택 교수(제주대학교 철학과)가 엮은 책이다. 김용정 교수의 5주기를 추모하는 책은 현대과학과 동서고금의 철학을 통해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한다.

윤용택 교수에 의하면 김용정 교수가 남긴 강의와 글들은 각기 다른 청중과 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단행본으로 묶어내려면 글의 높낮이를 조정해야만 했다. 이 책과 인연이 될 독자들이 불교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불자, 과학도, 철학도임을 감안하고 그 글들의 어떤 부분은 보강하고, 어떤 부분은 더러 생략하기도 했다. 책은 4부로 만들어졌다.

△1부 '불교, 과학, 철학의 삼중주'는 김용정 교수가 1980년 9월부터 1년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와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있을 때, 볼티모어 성불사에서 1981년 1월부터 8월까지 교수, 대학원생, 의사들을 대상으로 열었던 불교 강좌를 녹취한 강의록이다. 이 장에서는 동서사상의 만남, 불교의 중도사상, 불광과 초능력, 장(場)의 개념으로 보는 불교, 현대물리학과 불교 등의 주제를 다루며 불교와 철학 나아가 과학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2부 '〈반야바라밀다심경〉 강의'는 월간 〈불광〉지에 연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뉴욕 원각사에서 열렸던 강좌 내용 일부를 추가하여 보완한 것이다. 김용정 교수는 〈반야심경〉 강의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980년 겨울 뉴욕 맨해튼 원각사와 1995년 여름 한국불교발전연구원에서 했다. 후자의 강좌 내용은 월간 〈불광〉 255호~266호(1996년 1월~12월)에 '궁극의 이상세계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는 어째서 〈반야심경〉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경전인지 설명하고 있다.

△3부 '철학, 과학과 불교를 만나다'는 김용정 교수가 한창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40대부터 학문이 무르익은 70대까지의 글이 실려 있다. 이것들은 현대과학과 현대철학, 그리고 선종(禪宗)과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읽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서양철학과 불교의 만남, 과학철학과 종교의 만남, 과학과 불교의 대화, 과학기술시대의 선의 의미, 선의 깨달음과 이성의 자각 등은 AI 시대에 불교를 되돌아보게 하는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불교가 2500년이 넘은 역사가 오랜 종교이지만, 현대과학과 현대철학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줄 21세기 종교로서 으뜸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4부 '과학, 불교와 철학을 만나다'는 (주)범양사에서 발행했던 계간 〈과학사상〉에 실렸던 글을 다듬은 것이다. 〈과학사상〉은 "과학은 물질적 풍요에 국한하지 않고 철학과 종교와 함께 인간과 사회의 선(善)을 이루고 생태계 파괴를 막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1992년 창간하여 총 50호가 발간되었다. 김용정 교수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편집인을 맡으면서 서양의 과학문명과 동서고금의 철학사상 접목을 위해 애를 썼다. 여기서는 현대과학과 환경문제에 대한 저자의 성찰을 엿볼 수 있다. 본장에서는 현대 생명과학과 불교의 생명관, 생명과학기술과 생명윤리, 과학기술문명과 환경윤리 등을 다루고 있어 기후위기 시대에 불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영감을 준다.

〈불교, 과학과 철학을 만나다〉에 실린 글들은 짧게는 20여 년, 길게는 50여 년 전에 쓰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오늘에서 이 글들이 여전히 의미가 있고 유효한지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책은 동서고금의 철학과 과학을 폭넓게 소화한 철학자의 안목으로 불교를 조망하고 있다. 결국 '불법(佛法)'이 책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론은 어렵지 않다.

저자인 김용정 교수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철학과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칸트에 있어서의 자연과 자유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의 뉴욕주립대학교와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연구교수를 지냈다. 한국철학회장, 한국주역학회장, 한국선문화학회장, 한국불교발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고, 계간 〈과학사상〉 편집인을 10여 년 동안 맡았다.

주요 저서로는 〈과학과 불교〉 〈칸트철학연구〉 〈제3의 철학〉 〈과학과 철학〉 등이 있고, 주요 번역서로는 카프라의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및 〈생명의 그물〉, 리프킨의 〈엔트로피 1, 2〉,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와 에리히 프롬의 〈선과 정신분석〉, 사다티사의 〈불교란 무엇인가〉 등이 있으며, 이 외에 과학, 철학, 불교와 관련된 70여 편의 논문이 있다.

조선의 숲, 왜 순식간에 황폐해졌나



조선의 의례용 임산물

전영우 지음
조계종출판사 / 1만8천원

18세기 조선 산림의 황폐화 과정 조명
소나무 관재 산림황폐에 끼친 영향 소개
산림 고갈 대처 호남 · 영남 사찰림 활용

'지구'에 대한 걱정이 심각해져 가는 오늘에서 환경의 큰 주제 중 하나인 '산림'에 대한 아쉬운 이야기를 책으로 만난다. 울창했던 조선의 숲이 순식간에 황폐화된 아픈 이야기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와 만나야 하는 이유는 망가져가는 지구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진지하게 수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책 〈조선의 의례용 임산물〉은 18세기 조선 산림의 황폐화 과정을 조명한다.

'소나무 박사'로 알려진 전영우 명예교수(국민대)는 18세기 조선을 강타한 산림 황폐의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30년 동안 노력한 끝에 황장(소나무), 율목(밤나무), 향탄(숯) 같은 조선 왕실의 의례용 임산물이 중요한 실마리라는 것을 알아냈다. 책이 출간된 이유에는 조선의 의례용 임산물 조달에 기여한 사찰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함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의 의례용 임산물〉은 울창했던 조선시대 숲이 황폐화된 역사를 사실 자료를 기반으로 조명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시신을 화장해서 유골을 사찰에 안치하는 불교식 장례의식이 성행했던 것에 반해 조선은 〈주자가례〉의 매장식 장례 방식에 따라 소나무로 된 관이 왕실 장례의 필수품이 됐다. 그에 따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나무로 된 관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육친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했다.

조선 왕정은 왕실 장례에 필요한 의례용 임산물 조달에는 헌신을 다했지만, 일반 백성이 장례에 사용하는 소나무 관재는 물론이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목재와 땔감의 수급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그 때문에 산림 황폐화가 본격화된 18세기에 이르면 관재 값이 4~5배자 급등하고, 백성들이 가장 저렴한 관 1부를 사려면 밭 600평을 살 수 있는 금액인 50냥을 지불해야 했다.

조선 조정은 왜 왕족의 관재 조달에 활용한 방법을 백성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을까.

책은 조선 조정이 임산물 조달에 있어 백성을 위해서는 무능했지만 왕실을 위해서는 유능했던, 그 차별적 산림정책이 조선 후기에 발생한 산림 황폐화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지 면밀하게 밝힌다.

책의 구성으로 내용을 보면, △1장에서는 소나무가 조선시대 왕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의 관재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을 살핀다. 이와 함께 관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폐단들과 이를 막기 위한 조선 조정의 노력, 그럼에도 소나무 관재가 산림 황폐에 끼친 영향들을 차례로 소개한다.

△2장에서는 조선 후기 관의 가격이 400~500냥에 달한 이유가 산림 황폐로 인한 소나무 자원의 고갈과 함께 조선에서 제재용 톱을 생산(개량)하지 못한 점도 간과할 수 없음을 조선과 일본 사례를 비교하고, 제재용 잉거톱 제작 여부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조선 조정이 왕실 제례 품목 가운데 하나인 위패(위판)를 만들기 위해 밤나무 목재를 국용주재로 지정하면서, 밤나무를 어떻게 확보하고 조달했는지를 살핀다. 그 과정에서 18세기에 심화한 임산자원 고갈에 대처하고자 호남과 영남의 사찰림들을 활용한 배경 등을 고찰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조선시대 성리학적 통치행위에 있어서 왕족의 유택인 능·원·묘에 쓸 숯과 제향(祭享) 경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왕, 후궁, 왕자 등에게 배정된 향탄산을 살펴본다. 하지만 늘어나는 능침의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한양 인근이 아닌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도까지 향탄산을 배정하면서 날로 심화되는 산림 황폐화에 백성들까지 곤궁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사찰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향탄봉산을 관리한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본다.

박재완 기자

도서출판 운주사 •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5,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22,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2,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필원 외/22,000원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이필원 외/24,000원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이필원 외/25,000원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한상희 외/23,000원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로운 삶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이고,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책은 불교(초기, 대승, 선)와 서양철학, 심리학 등의 시각으로, 지혜에 대한 지혜로운 통찰을 담고 있다.

이필원 · 장진영 · 김호귀 · 이진우 · 권석만 집필
신국판양장/값 25,000원



YouTube 유튜브에서
"밝은사람들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지난 학술연찬회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바닷길로 전해진 '불교'



바다를 건넌 붓다
주강현 지음
소명출판 / 3만8천원

불교 전해진 경로 중 바닷길에 주목해
아시아 바닷길 네트워크 원형질 압축해
권역별로 불교의 바다 연대기를 재구성
바닷길 통한 전법과정 새 시각으로 정리
2024년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작 선정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사의 전개와 전파의 파장은 바다를 통해 가장 먼 데까지 작동됐다. 스리랑카와 동남아 등 바닷길로 전파되었으며, 아프리카 홍해의 항구 베레니케에서 불상이 나오고 있다. 명·청대에는 유라시아 극동의 아무르강변과 사할린까지 관음당이 존재했던 비석이 프리모예 박물관에 전해온다."

〈바다를 건넌 붓다〉는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여러 곳으로 전해진 경로 중에서 바닷길에 주목한 책이다. 바닷길을 통해 불교가 가닿은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곳에서는 어떻게 불교가 전해지고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현장답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소개한다.

기존의 불교사와 방향을 달리하여 역사 공간 혹은 공간역사의 이동과 접촉, 교류와 혼용 관점에서 서술된 불교사이자 연대기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20여 년에 걸친 현장조사에 입각해 방대한 분량의 〈해양실크로드문명사〉를 출간하고, 그것의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를 건넌 붓다-세계 불교 바다연대기〉를 마무리함으로써 인도양과 태평양에 걸쳐있는 아시아의 바닷길을 마감한다. 이 책은 '유럽 이전의 바닷길'로서 아시아문명을 형성시킨 바닷길 네트워크의 원형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 후속작업으로 바닷길을 통해 실천된 전법의 과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했다. 이 작업은 기존에 통용되었던 역사적 기록에 대한 재검토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남방과 북방, 대승과 소승으로 불교를 나누어 이해하던 관행을 버리고, 두 개의 반대적 맥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보고자 했다. 이 작업은 역사학과 민속학 내지 인류학 그리고 불교학의 종합적 결실로 볼 수 있다.



저자 주강현.

'불교의 전파'에서 기본적으로 언급되는 동전(東傳)은 그야말로 '도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직선으로 전해진 것이 아닌 것이다. 여러 나라와 지역, 민족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 교류와 상호 영향의 역사로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산물이다. 책에 의하면 바닷길로 들여다본 불교의 전파는 '남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남전불교는 스리랑카·미얀마·태국·캄보디아·라오스 등을 포함한 동남아에 전파된 스리랑카 대사파의 상좌부불교를 말하며, 북전불교는 북인도에서 서역을 거쳐 동아시아에 전해진 불교와 네팔·티베트를 경유하여 몽고 일대에 전해진 불교를 총칭한다.

19세기에 불교연구를 시작했던 서구 학자들이 팔리어 계통의 불전이 유행하는 동남아 불교에 대하여 '남방불교' 이름을 붙였고, 반면에 범어 불전과 그 번역이 유행한 지역의 불교를 인도에서 북쪽으로 전파되었다고 하여 '북전불교'라는 이름이 붙었다. 팔리어 또는 범어불전이 모두 인도에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엄밀하게 남전과 북전으로 이분하는 것은 적절한 분류법이 아닌 것이다.

책은 동남아 불교사나 상좌부불교에 방점을 둔 연구가 아니다. 그러나 남방의 바닷길로 이들 불교가 이동했으며, 오늘날도 최대의 불교국가로 남아있는 이들 남방불교의 바닷길을 주목하고 있다. 황금의 땅 수바르나푸미는 오랜 고대적 서사이며, 아소카가 보낸 전교사가 기원전에 이 땅에 당도한 기록이 있다. 오늘의 태국불교는 고대 몬-드바라바티 문화에 그 뿌리를 둔다. 교지(통킹만) 바닷길로 내려온 베트남 불교는 중국 남부의 선종 영향권에 놓여 있으며, 스리위자야 불교도 초기 불교의 대승전통과 후대의 밀교전통을 모두 갖고 있다. 반면에 베트남 남부 짬파불교의 동즈엉유적은 북방 선종이 아닌 남방 바닷길로 도착한 불교이다.

저자는 불교 전파의 바닷길이 의도하는 바를 제시하여 학문적 이해를 구하고자 했다. 책은 권역별로 불교의 바다 연대기를 재구한다. 그 길은 갠지스강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스리랑카, 벵골만, 아라비아해, 장안에서 천축으로 이어지는 구법순례, 말레이반도와 시암만, 자와해, 메콩강, 남중국해, 한반도로 이어지고 일본열도에서 맺는다.

불교의 4대 성지는 모두 갠지스강가이며, 벵골만 바닷길은 북방에서 내려온 불교가 동남아로 전파되는 루트였다. 벵골만에서 어느 날 배가 출발하여 '신비로운 섬 랑카'에 불교를 내려 놓는다. 내륙을 거쳐서 남하한 것이 아니라 갠지스강 하구에서 출발한 이동과 전파였다. 벵골만에서 바다를 건너가서 당도한 스리랑카에서 불교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다. 동시에 벵골만 동쪽으로 내려가 미얀마 바닷가에 불교가 안착했으며, 수완나부미라 부르던 황금의 땅 동남아의 전교가 시작됐다. 스리랑카와 동남아 불교 교섭은 전적으로 선편을 이용했다. 스리랑카에서 미얀마와 태국 등지로 불교가 전파되었던 반면에, 스리랑카 불교가 타밀족의 침략으로 와해·단절 위기에 처했을 때 동남아 불교가 서쪽으로 향하여 스리랑카 불교를 재건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불교 전파는 동진만이 아니라 서진도 존재하며, 북진과 남진이 모두 존재했다.

동남아와 중국으로의 해양을 통한 불교 전파에서 칼링가 역할이 중요했다. 스리랑카, 미얀마와 말레이반도, 수마트라와 자바, 캄보디아 등의 불교는 대체로 동인도에서 출발한 상선을 타고 전파됐다.

서쪽에는 서역이라는 각별한 공간이 존재했다. 인도-그리스왕국이 존재하던 공간이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헬레니즘제국에게 육로만이 아니라 인도양 바닷길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간과됐다.

말레이반도에서는 인도에서 넘어온 것으로 비정되는 산스크리트·브라흐미·빨리·팔레바 등 다양한 언어의 비문이 다수 발견됐다.

일찍이 가야의 불교나 백제의 불교는 바다를 통해 열렸으며, 특히 마라난타의 당도가 의미하는 남조와의 바닷길은 구체적인 것이 밝혀지지 않은 미궁의 역사이나 해양불교의 중요 사건으로 기록됐다.

주강현의 〈바다를 건넌 붓다〉는 불교평론이 수여하는 2024년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저자가 말했듯이, 역사 속의 구법·전법승들은 노마드(nomad)였다. 저자 또한 바다의 노마드가 돼 불교가 전파되어 간 바닷길 중심의 불교사를 연구한 끝에 그 성과를 세상에 내놓았다"며 "〈바다를 건넌 붓다〉는 수십 년간 세계의 불적지를 두루 답사한 현장 연구의 노작인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괴로움은 스스로 만들어 낸 것"



부처의 마음
다이구 겐쇼 지음
이선희 옮김
달먹는 토끼 / 1만7천8백원

"본당에 앉아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스승은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말없이 부처님 앞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슴 속에 괴로움이 들었다면, 소중한 사람이 괴로움 속에 있다면, 이 책 〈부처의 마음〉이 필요하다. 일본 아이치현 고마키시에 있는 작은 선사(禪寺)의 주지스님인 다이구 겐쇼가 마음 치유가 필요한 대중에게 전하는 설법으로, 동양철학과 부처의 가르침을 생활불교에 적용한 '지혜집'이다.

저자인 스님 역시 살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인해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다. 스님은 540년 전에 창건된 복엄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아버지이자 스승으로부터 세 살 때 경전을 받았다. 스님은 엄격한 환경이 싫었다. 출가만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스님이 가슴 속에 괴로움이 들어찰 때마다 찾은 곳은 결국 부처님이었다. 부처님 앞에서 울었다. 그러면서 괴로움에 대해 깨닫게 됐다. 괴로움은 결코 자신의 바깥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스님은 괴로움과 마주할 때면 불교 경전을 보기 시작했다. 거기에 '길'이 있었다. "진리란 시대와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거나 지혜를 말하는데, 그런 진리가 쓰여 있는 것이 불교의 경전입니다."

스님은 불교의 경전에는 세수하는 방법부터 명상법, 정신 집중법, 가정 화목법, 육아법, 건강법, 재산 증식법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괴로움에 대한 힌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스님은 그런 지혜가 담긴 경전의 의미를 곱씹으며 자신 안에 새겨 넣고, 사업에서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자 신기하리만큼 정신이 안정되고, 매일 벌어지는 사소한 사건에 일일이 동요하지 않게 됐다. 주변의 모든 일들이 좋은 쪽으로 흘러갔다. 스님 자신이 변하자 주변으로부터 상담 의뢰가 들어왔다. 연애 고민, 건강 고민, 육아 고민, 삶의 의미에 관한 고민, 장래의 꿈에 관한 고민, 회사 경영에 관한 고민 등 주지 소임을 보면서 틈틈이 이런저런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튜브 채널 '다이구 스님의 일문일답'이다.

책 〈부처의 마음〉에는 스님이 지금까지 해온 고민 상담과 관련한 '괴로움을 내려놓는 방법'을 담았다. 아울러 인간관계와 일에 대한 고민을 비롯해 금전, 경영, 육아, 가족 문제, 연애, 질병에 관한 고민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책은 총 50장으로 만들어졌다. 눈에 띄는 제목을 보고 관심 있는 장부터 읽어도 무방하다. 책의 장점이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밑줄을 긋거나 필사하고 싶을 만큼의 지식과 지혜가 듬뿍 담겨 있다.

동양철학과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한 스님의 현실적 조언은 마음치유가 필요한 대중에게 실제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자

불교, 사회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불교문화' 11월호 발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불교 대중 문화지 월간 〈불교문화〉 11월호(통권 제291호)를 발간했다.

11월호의 특집 주제는 '불교와 사회참여'로 불교가 사회적 실천을 통해 현대 사회와 어떻게 소통하며 그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는지를 다룬다.

구상진 변호사는 '불교에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불교의 정의는 정법(正法)에 따른 여법(如法)한 생활과 국가 사회질서에 귀착된다고 했다.

이재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부교수는 '경전에서 보는 불교와 사회참여'에서 경전에서는 이상사회를 탐욕으로 인한 소유욕에서 해방된 곳으로 그린다고 설명했다.

박수호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한국 불교의 사회참여 역사와 성찰'에서 실질적인 불교 사회운동은 1976년 민중불교운동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됐고, 1990년대 이후는 환경, 인권, 여성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난민 지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됐음을 조명했다.

이병욱 보조사상연구원 원장은 '현대 불교 관점에서 보는 사회참여에 대한 해석'을, 이명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드라망연구소장은 '붓다의 가르침과 생명평화의 길: 한국 불교의 사회참여'를 게재했다.

신중일 기자

깨달음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행복교과서



행복하고 싶은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주는 명상시, 입보리행론송

7~8세기의 성자 샨티데바가 모든 사람이 가장 바라는 행복으로 가는 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아름다운 게송(명상시)으로 일깨워 준 입보리행론송!
수행자의 안목으로 감동적인 게송만을 정선精選하고 개역改譯한 책

역자 원인, 저자 샨티데바 | 216쪽 | 15,000원

원인 스님 1969년 합천 해인사 입산, 1974년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 이후 50년간 선원과 토굴에서 정진, 2010년 김천 수도암 선원장, 현재 태백산 큰마음도량 회주, 유튜브 큰마음TV, 다음 큰마음카페
저서로 법문집《마음고향 가는 길》,《염불선의 요체》, 강설집《삶의 지혜(금강경 강설)》,《선으로 본 화엄경 요점 해설》,《초발심자경문 강설》, 선시집《마음여행》,《자연 속에서》,《구름 따라 길 따라》 등이 있다.

NEW BOOK
출판 기획안을 받습니다

도서출판 민족사에서는
참신한 불교책 기획안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minjoksa.org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계율, 삶·수행의 기준…이 기준 잊지말라”

해인사 보살계수계법회 해인삼매 법문

조계종 전계대화상 태허 무관 대종사

법보종찰 해인사는 10월 25~26일 경내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첫째 날인 10월 25일에는 경내 보경당에서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 해인총림 율주 경성 스님, 율원장 금강 스님의 해인삼매 법문이 이뤄졌다. 이날 첫 법사로 나선 무관 대종사의 법문을 정리 ·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리=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내일(10월 26일)은 보살계(菩薩戒) 수계법회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 계율과 가장 기본이 되는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오늘 해인사 부처님을 믿고 오신 보살님들은 집에서 할 일을 모두 마치고 집안 식구에게 허락받아 오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집안의 사람을 안정시키고 믿음을 얻는 것, 그것을 불교에서는 ‘연기(緣起)’라 한다.

연기라는 말에는 ‘관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 가족끼리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시키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법회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제일 먼저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관계 설정의 가장 첫 번째가 믿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해인사 보경당에 아무 탈 없이 올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덕분이다.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치고 가족들, 타인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면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모두들 가족들에게 믿음을 갖게 했기 때문에 오늘 오신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은 다르다. 불교는 깨달음을 얻어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종교다. 불교에서 믿음은 ‘신심(信心)’이라 하지 신앙이라 하지 않는다. 기독교처럼 신을 우러러 찬양하는 종교가 아니다. 같은 ‘믿을 신(信)’자 지만 차원이 다르다. 신심과 신앙 차이를 분명히 알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心)을 믿고(信)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오늘 해인사 보경당에 오지 못했다. 또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다. 그것이 불교에서 첫째가는 믿음이다.

깨달음은 불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을 믿는 데에서 깨달음이 발현된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을 불교에서 초발심(初發心)이라 한다. ‘나’ 자신을 믿고 마음을 내는 것이 불교의 올바른 믿음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다.

이에 불교는 신이나 절대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을 가르치는 종교다. 자신의 마음을 내고 믿으며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골자다. 무조건 신, 절대자에게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순전히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달렸다.

〈화엄경〉에는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라는 게송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현재·미래의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말이다.

‘심불급중생(心佛及衆生)’이라는 말도 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으니, 과거·현재·미래의 마음 또는 부처님, 중생을 알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마음만 깨닫게 되면 부처님이 된다. 가사장삼을 수하든 속복을 입든 그런 것과 관계없다. 바로 마음 쓰는 데 달린 것이다.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 이것이 불교고 〈화엄경〉의 내용이다.

> **여러분이 보살계 수지는 이유**
> **마음 사용하는 기준 필요해서**
> **계율에는 三寶 가르침들 담겨**
> **하루 5분, 마음을 다스려보길**

그렇다면 이 마음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어디다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른다. 일단 마음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아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이 없으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기준이 바로 계율(戒律)이다. 여러분이 보살계를 받는 이유도 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율은 불법승 삼보(佛法僧 三寶)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부처님의 행이고 계율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으며, 계율을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 스님이 있다. 불교의 가장 기본 가르침인 계정혜 삼학(戒定慧 三學)에도 계율의 가르침이 있지 않는가.

또한 선(善)과 불선(不善)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계율이기도 하다. 우리는 항상 착한 일을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계율을 모르면 착한 법과 착하지 못한 법을 가려내지 못한다. 이 계율을 마음과 머릿속에 담아내야 한다.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무관 대종사는… 1959년 출가해 1964년 향천사에서 보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희섭 스님.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한 무관 스님은 지관 스님 전강제자로서 승가교육에 평생을 매진했다. 해인사승가대학장, 해인사 율원장과 율주, 총무원 총무부장, 중앙종회의원, 법계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고 전계대화상으로서 불법홍포와 종풍진작에 진력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불교에는 삼세(三世)라는 말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의미한다. 공간을 말할 때는 동서남북, 북서·남서·남동·북동, 상·하를 포함해 ‘시방세계(十方世界)’라고 부른다. 여러분은 이 시간을, 삼세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과거는 이미 순간에 지나가 없어져버렸다. 지금 여러분이 해인사 보경당에 들어와 법문을 들은 지가 얼마나 됐나. 벌써 30분이란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한 순간도 그냥 있는 것이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버린다.

불교는 이런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과거는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 설사 나쁜 생각이 나더라도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다. 나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 다짐은 할지언정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라.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삼매’라고 일컫는다. 집착은 좋지 못한 법이고 집중은 올바른 법이다. 과거에 어떤 나쁜 경험을 했든 집착하지 말라. 그것이 불교가 과거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스스로의 결정,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미래도 역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금 자신의 행동을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으면 내 이야기가 잘 들릴 것이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잘 들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우리들이 항상 인생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기준이 필요하다. 바로 계율이다. 우리는 항상 선택하면서 순간순간 변화한다.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옳은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인지 판단한 뒤, 행동으로 옮긴다. 이 절차는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간다. 96분의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 순간, 단 96분의 1초 만에 시비(是非), 손익(損益) 판단을 해버린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판단이 문제가 되고 자연스럽게 결정 역시 잘못된다. 결과적으로는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기에 기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항상 마음, 머릿속에 계율을 담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인생의 목적이 뭔가. 바로 행복이다. 긍정적인 생각이 도움이 되지만, 행복의 뿌리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렸다. 마음이 안정돼야 행복하다. 불안하면 엉뚱한 생각으로 고통스럽기만 하다.

스스로가 안정을 찾으려면 마음의 평안을 꾀해야 한다. 평안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불교의 참선이다. 바로 집중하는 법이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참선하는 대중은 화두에 집중하면 된다.

화두는 1700개가 있다. 그 많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화두가 바로 ‘무(無)자’ 화두다. 그런데 이 무자 화두에 의정이 안되니 수행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음을 ‘하나’에 모아야 한다. 이 하나인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 하나는 무엇인가?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마음이 모양, 색깔, 크기 등 마음 자체에 집중을 기울여야 우리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을 하나에 모으고 그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수행이다. 화두를 들고 하루 5분이라도 수행한다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화엄경〉에는 ‘찰진심념가수지 대해중수가음진 허공가량풍가계 무능진설불공덕(刹塵心念可數知 大海中水可飮盡 虛空可量風可繫 無能盡說佛功德)’이란 말이 있다. 이 지구를 모두 부숴서 먼지로 만든 것은 헤아릴 수 있어도, 허공에 있는 바람을 모두 셀 수 있을지라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세계의 바닷물을 모두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여기서 마음은 부처님이다.

앞에서 말한 심불급중생,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 이 셋에는 차별이 없다.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면 중생도 헤아릴 수 없고 부처님도 헤아릴 수 없다.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마음과 중생 그리고 부처님을 ‘하나’라 했을 때 그 하나를 깨달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삼매’를 성취해야 한다. 하루 5분이라도 집중해서 마음이 안정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젠 필요해진 수익사업, '부처님 법'에 기반을

주목! 이 논문

현대 한국승가의 생산불교 正向

현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탈종교화는 종교인구 감소 현상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재정 문제는 현실적 문제가 됐다. 단순히 보시와 헌금만으로 종교단체의 재정 운영이 이뤄지기 어렵게 됐음을 알 수 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부교수는 생산불교에서 그 돌파구를 찾는다. 그는 한국불교학회 학술지 〈한국불교학〉111집에 게재한 '현대 한국승가의 생산불교 정향(正向)'을 통해 한국불교계에서 '생산불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조 교수의 논문을 발췌 · 정리했다.

정리=신중일 기자



함양 백용성 선사 화과원 유허지. 이곳은 백용성 선사가 선농불교를 표방하며 만든 농장이었다.

탈종교시대의 도래와 불자 수의 감소로 인한 사찰 재정의 어려움은 오늘날 한국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여러 종교단체들이 종교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열악해지고 있는 재정의 문제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불교단체 즉 종단과 사찰의 실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은 불교교단으로 하여금 자연스레 신도의 보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입구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런 논의에 있어서 많이 등장하는 방안이 '생산불교'다.

생산불교 변천–무진물, 선농불교

승가는 붓다를 중심으로 한 '무경제(無經濟)'의 생활 집단이었다. 붓다 재세시에는 붓다를 직접 신봉했지만 불멸 후 그의 유골을 모신 불탑으로 신앙대상이 옮겨지면서부터 승가의 무경제 생활은 본질적으로 변하게 된다. 진보적인 대중부는 탑물일지라도 일부러 버려두지 않고, 세간의 사업에 투자하여 이윤을 얻든가, 때로는 저당을 잡고 대부해줘 이자를 받아 원본의 무한한 증색을 꾀하는 경제적 합리주의를 선택했다.

불탑에 기진된 물건 또는 재화를 외부에 투자 혹은 대부하여 얻은 이익물이나 이자를 무진물(無盡物)이라 하였다. 무진물은 대중부에서 인정받아 수용되었고, 대승불교에 들어와서는 더욱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

이 같은 무진물은 우리나라의 고려불교에서도 나타난다. 본래 무진물은 그 이익물과 이윤을 불탑의 공양비나 사찰의 유지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고려불교에서는 무진물을 가지고 승려의 본분을 벗어난 직업적 활동에 이르렀다. 이런 병리적 현상은 조선시대에 들어 불교에 대한 배척과 공격의 빌미가 되었고, 조선에서 불교는 사회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승가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조선불교는 스스로 자립하여 생존하고자 생산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

조선승가의 자급자족은 '선농불교(禪農佛教)'로 발현됐다. 일체의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던 선가(禪家)에서 조차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백장청규(百丈淸規)〉가 나올 정도로 승가의 생산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된다.

이러한 승가의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는 근대 한국불교에서도 발견된다. 용성(1864-1940)은 승려들이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지 말고 직접 괭이와 호미를 가지고 힘써 노동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충당할 것을 주장했다. 나아가 용성은 화과원(華果院)이라는 농장을 설립해 승려들이 직접 경작하게 함으로써 자급자족하는 선농불교를 실천했다.

현대 한국불교에 있어서도 토지가 교단의 경제적 토대를 이루고 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정보사회로 전환됨에 따라서 오늘날의 생산불교는 양태를 달리하고 있다.

현재 한국불교의 종단과 사찰들도 과거처럼 농지와 산림 등의 토지를 경작하여 농림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활용한 임대업을 하고는 있다. 이와 같은 생산불교의 방식 변화는 그 동안 사찰경제를 지탱해 온 토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적 자산을 상품화하는 경제활동으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생산불교의 여법한 실천

종단과 사찰이 생산불교를 하더라도 여법하지 않은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답지 않은 사업은 수익이 생겨도 해서는 안 되고, 그 사업이 법다울 때 비로소 해야 된다는 뜻이다. 물론 이때의 법은 불법(佛法), 즉 붓다의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법다운 것인가? 법다움의 기준은 수익사업의 목적과 방법에 둘 수 있을 것이다.

無경제서 경제적 합리주의 변화
백장청규 기반한 선농불교 유지
탈종교시대, '생산불교' 필요해져
수익 최소화, 공유하는 인식 중요
교단 운영에 재가신도 역할 필요

우선 목적부터 논하면, 불교교단의 사업은 비록 그것이 수익사업일지라도 수익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익은 종속되는 결과가 되도록 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 외에는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은 법답지 않은 사업이고, 불교의 원래 목적인 중생고의 해소를 실현하는 방편으로서의 사업이라면 법다운 사업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종단과 사찰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상담센터나 명상센터, 그리고 호스피스병원 등이 여법한 사업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 사업의 비중이 크지 못한 현실은 현행 수익사업의 여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방법을 논하면, 최소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일반사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이윤을 추구하지만 종단과 사찰은 영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에 최소 이윤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의 아속(Asoke) 공동체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아속 공동체는 "우리는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선물하기 위해 생산하는 것"이라며 원가를 공개하고 이윤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보기 드문 공동체다.

아속공동체는 약과 의·식·주 등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만 생산한다. 이와 관련해 비료공장, 허브의약품공장, 병원, 채식당 등을 운영한다. 그들은 생산과 판매를 하되 인간생활에 있어서 기호품이 아닌 필수품만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불교교단이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수익이 아닌 중생고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이의 실천방법으로 최소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승려의 무욕과 청빈이 필요하다. 무욕과 청빈은 탐심을 여의어야만 얻을 수 있다. 출가 승려의 삶은 본래 탐심을 여의는 무욕과 청빈의 삶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초발심을 갖는 행자 시기부터 구족계를 갖춘 정식 승려 시기에 이르기 까지 매순간 세속 범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갖도록 승가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승가에 이러한 가치관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세속 범부처럼 수익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최대 이윤을 얻고자 생산·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출가 승려답게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최소 이윤을 얻는 생산불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재정의 투명화와 수익의 공유화

어느 단체에서든 생산과 수익이 있는데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부정이 생길 여지가 크다. 불교교단의 재정 투명화는 종단과 사찰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불교에서 재정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종단과 사찰은 드물며, 공개를 한다 해도 신뢰성을 갖춘 수준의 자료를 보기가 힘들다. 공개되지 않는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종단과 사찰의 불투명한 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 파급 효과는 사적(私的) 소유의 팽배와 불평등 분배의 확산이다.

붓다는 승가의 소유에 대하여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옷과 음식 등은 나눌 수 있는 가분물(可分物)로 모두 현전승가의 소유가 되도록 하였으며, 토지나 건물 등은 나눌 수 없는 불가분물(不可分物)로 모두 사방승가의 소유가 되도록 하였으며, 이외 시주자가 개인에게 시주한 것과 승가로부터 분배받은 것만 개인의 소유로 인정하였다.

생산불교의 수익 중 일부가 승려의 보시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수익은 개인에게 분배되는 사유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불교로 인한 수익은 가분물이든 불가분물이든 승가공동체의 공유물이 되어야 한다.

재가신도 생산불교 주체 의식 강화

현재 신도의 교단 운영 참여는 상당 부분 수동적 또는 피동적 양태를 보이고 있다. 불교교단의 운영에 있어서 신도의 이러한 수동적·피동적 참여는 기복불교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에게 복을 구하는 기복(祈福)은 어느 종교에서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복은 신도들이 자신들의 복만을 구하는 행위이기에 사찰의 운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든다.

기복이 신도를 수동·피동적이게 만드는 요인이라면, 기복을 작복(作福)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복을 작복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불전(佛前)에 무조건적으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선업(善業)이 선연(善緣)을 지어 복으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신도가 생산불교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신도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신도의 교단 운영 참여에 대한 승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도의 교단 운영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승가에 존재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출가자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도의 운영 참여는 시대적 요청이기에 출가 승려는 재가신도를 교단 운영에서 객체로서 한정짓지 말고 주체로서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승려의 인식 개선은 신도가 생산불교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부교수

인도성지순례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신 날 성도재일을 보드가야 대탑에서
성도재일 기도 법회와 인도 7대 성지순례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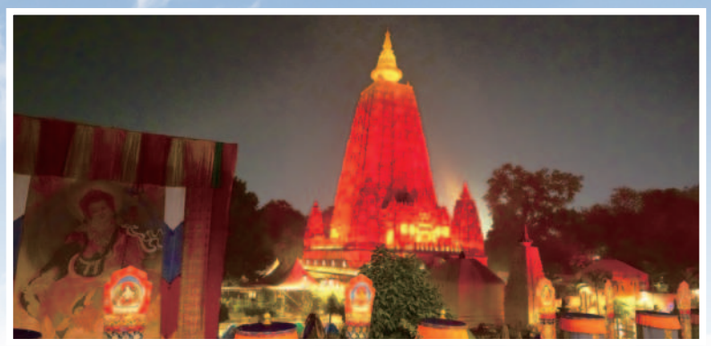
2025년 1월 04일 출발 ~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인도성지 중에서 케사리야 대불탑 뿐만 아니라 - 부처님 출가의 길로 추정되는 곳들에 세워진 난단가르 대불탑(인도 최대의 불탑)과 아쇼카대왕의 석주들인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 석주등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하며 새로운 성지들을 찾아가는 일정으로 순례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 일 정 : 인천 – 델리 – 바라나시 – 보드가야 – 라즈기르 – 영축산 – 나란다대학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석주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기원정사 – 아그라 – 델리 – 인천
▶ 동참금 : 299만원
▶ 기타 인도성지순례 출발일 : 2024년 12월 05일 출발 ~ 12월 15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2025년 2월 15일 출발 ~ 2월 25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인도양의 진주 아름다운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025년 1월 13일 ~ 1월 20일 (8일간)
▶ 일 정 : 인천 – 콜롬보 – 담불라 – 아누라다푸라 – 시기리야 – 폴론나루와 – 누와라엘리야(홍차산지) – 갈레(유럽풍 성채도시) – 아훈갈라(해변 휴양지) – 콜롬보 – 인천
▶ 동참금 : 279만원

중남미 6개국 여행 20일 2025년 3월 5일 ~ 3월 24일
▶ 일 정 : 인천 – 아틀란타 – 리마(페루) – 쿠스코 – 마추픽추 – 쿠스코 – 라파즈(볼리비아) – 우유니 – 라파즈 – 리마 – 리오(브라질) – 이과수(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 파타고니아 엘칼라파테 – 보고타(경유) – 멕시코 시티 – 칸쿤(멕시코) – LA(경유) – 인천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21 경북 영주 태백산 부석사

▶한줄 요약
부석사 내려오는 길 무량수전 근처에서 저 멀리 산에 해 떨어지는 장관을 보면 그 순간 바로 여기가 정토임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이 하나, 하나가 모든 것인 화엄정토다.



의상 스님과 선묘 낭자 불연으로 세운 가람

〈佛緣〉

봄날 사과꽃이 필 때, 보통 경북 영주 부석사를 추천한다. 필자는 일주문 안팎으로 은행잎이 노랗게 될 때가 더 그립다. 물론 눈 내린 부석사도 좋다. 그 계절에 4시 전후 순례를 시작하면, 무량수전(국보) 앞에서 멋진 장관을 볼 수 있다. 저 멀리 백두대간 능선으로 떨어지는 해가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부석사 무량수전 옆 삼층석탑에서 바라본 풍경.

돌을 공중에 띄워 삿된 무리를 제압한 선묘용

부석사는 676년(문무왕 16) 2월에 의상 스님(625~702)이 왕명으로 창건한 화엄종의 중심 사찰이었다.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617~686)이 당나라 유학길에 비를 피하고자 잠시 머문 무덤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다. 그 계기로 원효 스님은 되돌아가고, 의상 스님은 당나라로 향했다. 〈송고승전(宋高僧傳)〉에는 이 이야기와 함께 부석사 창건 설화가 있다.

의상 스님은 669년 당나라 등주 해안에 도착해 신도 집에 머물렀다. 그 집의 선묘 낭자는 스님을 연모했다. 그러나 스님 마음은 동요가 없었다. 그러자 낭자는 신도로서 스님을 모셨다. 이후 스님은 공부를 마친 뒤 귀국길에 올랐다. 뒤늦게 스님의 귀국을 알게 된 낭자는 해안가로 달려갔다. 그러나 스님이 탄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나서 멀리 가고 있었다. 낭자는 기도를 올렸다. '이 몸이 큰 용으로 변하여 저 배의 선체와 노를 지키는 날개가 되어 대사님이 무사히 본국에 돌아가 법을 전할 수 있게 하리라.' 그리고는 웃옷을 벗어 던지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진정한 원력으로 낭자는 용이 되어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 나갔다.

의상 스님은 귀국 후 불법을 펼칠 장소를 찾아다녔다. 마침내 적절한 곳을 찾았다. 그런데 이미 삿된 무리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때 선묘용은 스님 생각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허공에서 대변신을 일으켜 커다란 바위로 변했다. 허공에 뜬 바위는 막 떨어질 듯하였다. 그 광경에 삿된 무리는 당황하며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마침내 스님은 〈화엄경〉을 펼쳤다. 스님 설법을 듣고자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국왕은 스님을 존중하여 논밭 등을 시주하였다.

선묘 낭자는 연모의 마음을 불심(佛心)으로 돌렸고, 더욱이 용이 되어 스님이 불법을 펼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지금도 부석사 무량수전 밑에는 돌로 만든 용이 묻혀 있다고 한다. 머리 부분은 아미타불상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하며, 꼬리 부분은 석등 아래에 묻혀 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절을 고칠 때 석룡 일부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자연적인 용 비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량수전 오른쪽 뒤에는 선묘각이 있다. 한편, 선묘 설화는 일본의 고산사(高山寺)에도 전해지며, 그곳에서는 선묘 낭자를 불교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다.

부석이 실제로 공중에 떠 있다고?

무량수전 왼쪽 뒤에 커다란 바위가 있다. 선묘의 화신이라고 전한다. 언제 새겼는지 모르지만, 바위에는 '浮石'이라는 글씨가 있다. '뜬 돌'이라는 뜻이다. 부석사 창건 설화와 관계있는 바위다.

30년 전 수업 중에 동국대 모교수는 부석 양쪽에서 실을 잡고 바위 밑을 통과하였다고 말하였다. 실제 '뜬 돌'임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부석은 양쪽에서 실을 잡고 지나기 힘든 위치에 있다. 설사 위치가 되더라도 무거운 바위 밑으로 실이 그대로 통과하기 힘들다. 그래도 그 말을 믿고 가능한 방법을 생각했다. 가령 시소처럼 바위가 움직여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게 무게 중심이 두 군데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또한 무거운 바위라 인간의 힘으로 바위를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1723년에 부석사에 와서 실로 부석을 통과했는데, 그 이치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기록이 있다. 그때 교수가 본인의 경험을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이중환의 경험을 본인 경험으로 언급한 것인지. 여하튼 통과했다면 참으로 신기할 따름이다.



'浮石' 이라는 글씨가 새겨있는 부석.

불심으로 스님 도운 선묘 낭자
돌 공중 띄워 삿된 무리 제압해
'뜬 돌' 대한 설화로까지 이어져



무량수전 측면에 모셔진 아미타부처님.

많은 전각이 조화를 이뤄 '華(화)'자를 나타내다

부석사 안내는 입구 안내도에서 시작한다. 안내도를 보면, 많은 전각이 '華(화)'라는 글자 위에 조화롭게 있는 듯하다. 화엄종(華嚴宗)의 중심 사찰답다. 그리고 천왕문에서 중심 법당인 무량수전에 이르기까지 크게 세 개의 기단이 있다. 극락에 태어나는 중생의 부류를 크게 상품, 중품, 하품 셋으로 구분한다. 이것을 세 기단과 연결하여 언급하기도 한다.

화엄종 사찰의 중심 부처님은 대부분 비로자나불이다. 비로자나불은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으로서 법신불(法身佛)이다. 그런데 부석사는 아미타불을 본존으로 모시고 있다. 〈화엄경〉의 본존은 비로자나불이지만, 〈화엄경〉 마지막 품인 입법계품(入法界品) 끝부분에는 '극락세계와 아미타부처님'을 언급한다. 부석사 〈원융국사비명〉을 보면, 의상 스님 역시 아미타부처님을 모신 이유를 입법계품의 내용 등으로 답변하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대중은 비로자나불보다는 아미타불을 가깝게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

'아미타'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는 수명(무량수無量壽)'이라는 뜻이 있다. 법당 이름이 무량수전(無量壽殿)인 이유다. 아미타부처님은 서방 극락세계에 계신다.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는 부처님을 법당 정면이 아니라 서쪽 측면에 모신 이유다. 그리고 그 부처님 손 모양(수인手印)을 보면, 선정인과 항마촉지인이다. 선정인(禪定印)은 선정에 있는 모습,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은 마왕을 항복시키고자 지신(地神)을 가리키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처럼 항마촉지인은 석가모니부처님이 깨닫기 바로 직전의 일화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수인을 하고 있으면, 석가모니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꼭 석가모니부처님만 하는 수인은 아니다. 대부분 부처님이 석가모니부처님과 비슷한 일대기를 거치기 때문이다. 수인으로 부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의상 스님의 지팡이가 나무로 자라나다

부석사를 찾으면, 대부분 무량수전 근처에서 발걸음을 돌린다. 꼭 삼층석탑 뒤로 난 산길로 조금만 올라가 보시길. 참으로 한적한 공간이 이어진다. 조사당(국보)에서 자인당에 이르는 오솔길이다. 특히 조사당 앞 철망 속 나무를 꼭 살펴보시길.

조사당은 의상 스님 진영을 모신 전각이다. 조사당 처마 밑에는 철망 속에 보호(?)되고 있는 특별한 나무가 있다. 바로 의상 스님의 지팡이가 자라난 나무다. 스님은 지팡이를 꽂으면서 말하였다. "이 나무가 싱싱하게 잘 자라면 나는 세상 어느 곳인가 살아 있는 것이고, 이 나무가 시들어 죽으면 나 역시 생을 마친 것이 될 것이다." 이 나무는 '선비화(仙扉花)'(신선의 집)라 전한다. 또는 〈택리지〉에는 "잎이 피거나 지는 일이 없어 스님들은 '비선화수(飛仙花樹)'라고 한다"고 한다. 이야기대로라면 이 선비화는 1300년이 넘는다. 이 나무의 학명은 골담초다.

선비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다. 조선 광해군 때 경상감사 정조가 지팡이를 만들겠다며 이 나무를 잘라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광해군이 물러나고 인조 때 역적으로 몰려 참형을 당하였다. 선비화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지금도 사람들이 훼손할 염려가 있어서 그런지, 철망 속에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돌다 보면, 내려오는 길에 무량수전 근처에서 저 멀리 산에 해가 떨어지는 장관을 보게 되리라. 그 순간 바로 여기가 정토다. 모든 것이 하나, 하나가 모든 것인 화엄정토다.

〈불교학자〉

대행 스님 법어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얕은 물도 깊은 물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배가 되어라."

마음의 길, 주인의 삶으로 이끄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

스님께서 30여 년에 걸쳐 설하신 방대한 법문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대로 담아 낸 법문집들은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무한량의 자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알음알음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경을 보되 누가 보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목마를 때 스스로
물 한 컵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한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 말씀에 담긴 깊고 간곡한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가 18,000원 / 375쪽 /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06호 | 15 | 전면광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악만 볼 뿐
자신의 악은 볼 줄 모르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선만 볼 뿐
남의 선을 볼 줄 모른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률삼매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00평
- 건평 : 60평 외
-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30억
- 위치 : 경남
- 부지 : 1000평
- 전각 : 대웅전 외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승계협의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대출 8千만원 안고 6억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74-9301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산로 185-53
- 문전천황 기도도량
- 약 8천평 15억원

054-972-1080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사찰 최적 한옥

- 위치 : 합천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해인사ic서 15분 거리
- 대지 : 158평(실평수 훨씬 많음)
- 건물 : 한옥(목조) 25평+황토방 별도 5평
- 가액 : 협의 후 결정

뒤에 산이며 마을 끝부분으로 조용하고 사찰지로서 최적지

010-3824-0846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 황등 장원사
- 규모 :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방4 거실2, 산신각 5평
- 외부 : 5층탑, 미륵불, 약사불, 용탑
- 법당부지 300평(개인) 대지 300평+전400평(캠코)
- 가액 : 1억 5000만원

010-9288-68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도청 부근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가액 : 9억 절충

010-9692-57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1000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유천면 화전길21-73번지 불심사
- 법당 30평, 요사채 등 가람 구조 완비
- 권리금 5000만원

010-5198-0459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산동 (범어사역 5분)
- 3층 33평 (보 3백, 월 35만)
- 삼존불법당, 주방, 방, 베란다, 에어컨
- 시설완비 (바닥 전체 도시가스)
- 몸만 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305-4366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고양시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근처) (일산역 6분거리)
- 규모 : 40평 정도(3층)
- 보증금 : 300만원 월세 40만원
- 삼존불(동불) 탱화, 불구, 집기 일체, 호신불 230불 가량 등
- 모든 시설 포함 2000만원에 넘김 (조정 가능)

010-2847-6289

제주 (땅) 안내

- 전답 : 약 3천평 평당 50만원
- 팬션, 주택, 농장, 노후투자 확실 (도로접근최고) 일주도로 70m거리
- 현재 : 밀감 및 조경수 식재 300m 안에 (바닷가, 목욕탕, 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병원, 한의원, 소방서, 초 · 중학교)
- 주인직접전화

010-2104-2040

사 찰 안 내

- 경남
- 종교부지 : 300평
- 대상사찰 : 26.6평
- 사찰부지 : 306평 총 : 632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6억 8000만원

010-2993-33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 대지 : 210평(2필지)
- 건물 : 법당, 삼성각, 요사채(방4개) 주차장
- 가액 : 2억 3000만원

집기류, 가전제품, 모든 기물 양도. 경내 영험있는 서남나무 있음.

010-5022-2187
010-5333-8905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찰 인근 주택 안내

김제시 금산면 모악14길 43
금산사 인근 주택

- 임야 177평, 대지 195평
- 안채 28.3평, 창고17.6평
- 추가 활용 부지 약 150평
- 가액 : 2억5천만원

010-5008-1120

사 찰 안 내

- 위치 :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130번지 해동암
- 대지 301평, 법당 10평, 요사채
- 가액 : 1억 3000만원 (절충가능)

061-863-0133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2억 5천만원 (절충 가능)

010-4835-1739

사찰(급)안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9500만원



010-4180-1788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영가장애(빙의) · 신기운 장애로 고통 받는 모든 분들이 신심, 발심하여 좋은 인연 맺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여 행복해 지시길 간절히 발원드립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 해결법] 전화상담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① 빙의, 신기운 체크
일단 몸 안에 어떤 기운이 악영향을 미치는지 체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② 그 기운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지? 노력하도록 방법을 일러드리고 스스로 노력해보고 도저히 안되었을 때 개입하여 문제해결로 접근함.
③ 문제해결 방법은 몸속에 영향 미치는 기운 확인, 체크후 환자로부터 몸 밖으로 분리, 차단하여 천도시킴.
※ 대부분 효과가 없는 것은 환자로부터 분리, 차단 하지않고/ 몸 밖에서만 굿이나, 천도재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리 없음.
④ 빙의,신기운에 가장 효과적인 '금강경'을 독송하게 하거나, 듣게하고, 효과적인 '기도문'을 실행 하도록하여, 스스로 방어함과 힘을 기르게 하고 원격으로 빙의 기운을 체크, 차단시켜 드림.(최고 전문가만 가능)
⑤ 천도재 법사스님이 정법(正法)에 대한 큰 법력(法力)을 갖추어야 빙의, 신기운을 천도, 다스릴 수 있으며, 빙의, 신기운도 법사스님께나, 환자당사자, 가족에게도 감사해하고 고마워해야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 퇴마가 아닙니다. 강제적 퇴마는 좋은 방법이 아니며 또 다른 원결이됩니다!
⑥ 많은 천도 경험으로 알게된 것은 과거, 전생에 자신이 지은 악업(주로 살생업), 선대조상들께서 지은 업연(業緣), 악연(惡緣)이 그 빚갚음, 앙갚음을 위해서,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냥 오는 것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에 따라 오는것이니, 달게 받아들이고 참회하고, 금강경독송하고, 천도정성의 복을 지어 드려야, 그 고(苦)가 풀려 난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⑦ 금강경 독송 정진과 참회정진, 천도재 정성드림, 미륵존여래불 정진으로 해결 못할 난제는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좋은 인연 맺어 보십시오!
※ 증세의 경·중에 따라 경제적 부담도 고려하여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 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06호 | 16 | 전면광고

오근(눈, 귀, 코, 혀, 몸)을 제어하여, 그것이 방일해서 오욕(빛, 소리, 냄새, 맛, 촉감)에 들어가지 말게 하라. 마치 소치는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 단속해서, 소로 하여금 날뛰어 남의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유교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비구 ·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위치 : 경북 성주군
010-6263-2425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져있다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절마당 닷컴을 오픈했습니다.

절집안의 필요한 종무원 구인구직 및 절부동산 안내와 이름작명을 빠르게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절마당 운영자 합장

www.절마당.com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주지 구함

경남 하동 악양
전통사찰 500평
퇴마 잘하는 주지스님이나
퇴마 보살 구함

010-8298-380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교의식(행사대행)

49재, 천도재, 예수재, 점안식
(법문, 바라, 나비무, 법고무)
초대해 주시면 불사 행사 성취에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암당 덕평
010-6219-4757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사찰전문 건축공사

1. 사찰 지붕공사(칼라 강판 · 판넬)
2. 화장실 등 사찰 수리
3. 요사채 창고 등 신축 수리
4. 전기판넬, 보일러 등 난방 공사
5. 전기배선, 조명 공사
6. 진입로, 옹벽, 기타 토목공사

*공사관련 모든 사항 상담 가능

대성 010-3817-8075
개발 010-3824-0846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범음 범패 교육도량

통영 안정사의 전통소리
바라춤, 작법무, 49재, 천도재
각종 불공 행사
정성껏 해드립니다

부산 온천장 미타사
010-3653-5151

수행하며 오래도록 절에 계실 분 공양주를 모십니다

경북 예천 용화사

010-6529-2005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해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록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영혼의 세계 빙의

◉ 전생 빙의 퇴마 ◉

전생을 알아야 실마리가 풀린다
본인들 입으로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 말하게 됩니다

신비의 약손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임신이 안되는 분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상담 가능 천광암 H.P 010-8673-4426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양해드립니다.



박동춘의 茶 이야기 ㉑ 품다삼매(品茶三昧)

은거 문인, 茶로 삼매에 들다



심주의 동장원책 중에서 졸수암 전경. 심주의 산수화와 글씨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차를 즐기는 경지를 '품다삼매(品茶三昧)'라고 말한 사람은 명대 오문화파(吳門畵派)를 개창한 심주(沈周, 1427~1509)이다. 종래에 차를 다리는 경지를 '전다삼매(煎茶三昧)'나 '팽다삼매(烹茶三昧)' '점다삼매(點茶三昧)' 등으로 표현하였고, 조선 후기 김정희(1786~1856)가 명선(茗禪), 다삼매(茶三昧)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가 있다. 그런데 명대 대표적인 산림에 은거한 문인 심주(沈周)는 다사(茶事)의 고상한 품격을 '품다삼매(品茶三昧)'라 말했으니 이는 그가 은거한 문인으로 차의 심오한 경지를 경험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시·서·화에 밝았던 문인이었다. 원대 황공망(黃公望, 1269~1354)의 화풍에 몰두했고, 만년엔 오진(吳鎭, 1280~1354)의 화풍을 배워, 산수화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점도, 그를 통해 명대 은거 문인의 차에 대한 취향과 격조를 살펴 볼 수 있는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한편 그가 강남의 문인 집안 출신으로, 그의 선대들도 서화에 능했던 가문(家門)이었지만, 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은 채 시와 그림, 글씨, 차를 즐기는 삶으로 일관했다. 그러므로 동시대 인물 문징명(文徵明 1470~1559)은 그를 "산 중에 신선(山中神仙)"이라 칭송했던 것이다.

16세기 초까지 소주 지역을 근거로 활동했던 심주는 문징명·당인(唐寅, 1470~1523)·구영(仇英, 1482~1559) 등과 명사가(明四家)로 자리를 나란히 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평생 산림에 은거했던 연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의 치세(治世)와 관련이 깊을 것이라 생각한다. 명나라 건국 초기 황제 주원장(1328~1398)이 서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황실로 모여들었지만, 왕권이 강화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에 염증을 느낀 문인, 화가들은 산림에 은둔하는 풍조가 생겼다.

한때 주원장은 명나라 건국에 동조하지 않았던 소주 지역뿐 아니라 강남 지역의 문인들을 배척하여 과거나 등용을 하지 않는 정책을 폈던 것도

> **明 건국 주원장, 소주·강남 지역 문인 배척해**
> **해당 지역 문인들 은거하며 안빈낙도 삶 살아**

강남 문인들이 산림에 은거하며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던 계기가 되었다. 이런 시대 환경은 심주에 영향을 미쳐, 그 또한 산림에 은거하며 시·서·화·차에 몰두할 뿐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아무튼 15~16세기 초엽에는 은거 문인들이 차를 즐기는 아취를 시문과 그림에 담았기에 이들의 소박한 삶 속에 차가 주는 위안을 만끽했던 흐름을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심주가 품다삼매를 언급한 것은 〈발다록(跋茶錄)〉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초해 선생은 산림에 사는 진실하고도 참된 군자이다. 평소 높은 벼슬아치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날마다 청산을 굽어보고 흰 구름을 바라보면서 한 잔의 차로 반평생을 보냈으니 실제 품다삼매를 얻어 (차를) 보좌로 두었던 것이다. (이런 경지는)육우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 초해 선생은 차의 바른 역사 기록자(동호)라 하여도 좋으리라. (樵海先生 眞隱君子也 平日不知朱門爲何物 日偃仰於靑山白雲堆中 以一瓢消磨半生 蓋實得品茶三昧 可以羽翼 桑苧翁之所不及 卽謂先生爲茶中董狐可也)

윗글은 명대 문인들, 즉 산림에 은거하면서 일상을 검소하고 고상하게 살았던 문인의 일상을 드러낸 셈이다. 실제 초해 선생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심주와 뜻이 통했던 지기(知己)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초해 선생은 참된 은군자(隱君子)였다는 심주의 평가는 그 자신도 초해 선생처럼 청산과 흰 구름 등, 속기가 없는 자연을 좋아했던 인물로, 초해 선생과 같은 이상을 품었다고 확신하였다. 늘 차를 즐기면서 참(眞)을 지향했던 문인들에게 차와 자연은 동일한 격물(格物)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심주나 초해 선생 같은 은둔한 군자는 붉은 칠을 한 대문과 화려하게 치장한 권문세가나 구중궁궐에 나갈 뜻이 없었다. 다만 차 한 잔과 자연이 이들의 곁을 지켜 주는 참된 보좌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차는 사람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기에 오랜 역사 속에서 간단없이 이어졌던 것일까. 차를 마시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답답함과 피로감을 비갠 가을 하늘처럼 상쾌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었다.

한편 심주는 초해 선생은 차의 오묘한 이치를 터득한 사람이라서 그가 즐기는 차의 고상함은 차 문화를 집대성한 육우(陸羽)도 이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초해 선생은 차의 참된 원리를 진실하게 기록하는 기록자라 평가한 것이니 이는 검박하고 고상한 차의 세계를 만끽한 명대의 은거 문인의 자부심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명대는 산차(散茶, 잎차)가 대세를 이뤘던 시대였다. 하지만 주원장이 단차 생산을 금지하는 조칙이 반포하기 이전엔 가루차, 즉 단차의 효능이 잎차보다 우수하다고 인식했다. 이런 사실은 주권(朱權, 1378~1448)의 〈다보(茶譜)〉에서 확인된다.

〈물지〉에 이르길 좋은 차를 마시면 사람이 잠을 적게 하는데, 이는 차의 실체다. 다만 차가 좋으면, 바로 효과가 난다. (이는 단차류인)가루 차를 마실 때 드러나며 만약 잎차를 끓인다면 (차의)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物志云 飮眞茶 令人少眠 此是實事 但茶佳乃效 且須末茶飮之 如葉烹者 不效也)

실제 주원장의 단차 금지령을 반포한 것은 대략 1391년경이다. 단차 금지령이 반포된 이후에도 차의 효능이 좋은 것은 단차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잎차를 선호하는 흐름에 따라 잎차의 제다법이 점차 개량되고 솥에서 직접 덖어내는 초청법(抄靑法)이 일반화되면서 우수한 잎차가 명차의 반열에 오르는 시대를 구가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㊷

1.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흔히 강을 건너는 것에 비유한다.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온갖 맹수와 위험이 도사리는 밀림을 헤매던 사람이 강가에 다다랐다. 강 건너편을 보니 넓은 들에 온갖 곡식과 과일이 풍성했다. 그곳은 갑자기 튀어나와 뒷덜미를 무는 맹수도 없고, 슬금슬금 목덜미를 기어오르는 독충도 없고, 손과 발을 할퀴는 독초도 없는 곳이다. 지금 겪고 있는 온갖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려면 강을 건너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한다. 그러나 강물은 깊고 차갑고 거세게 소용돌이 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강을 건너려면 튼튼한 배를 만들고, 거친 물살을 타는 지혜를 갖추고, 노를 부지런히 저어야 한다."

① 맹수와 독충은 삶의 고통을 비유한 것이다.
② 지혜로운 뱃사공은 수행자를 비유한 것이다.
③ 튼튼한 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한 것이다.
④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는 것은 죽음을 비유한 것이다.
⑤ 깊고 세찬 강물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을 비유한 것이다.

해설 :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는 것은 피안(彼岸), 즉 열반을 말한다. 열반은 번뇌가 소멸된 상태로 윤회가 다하여 다시 태어남이 없음을 말한다. 단순한 죽음은 다시 태어남으로 연결되기에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님으로 불교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다음에 나타난 사상과 거리가 먼 것은?

훌륭한 미술가는 쓰레기 더미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지만,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흐(Gogh)의 그림도 어린아이의 붓장난일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세하고 정교하게 연결된 세계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지, 마음 내키는 대로 허공에 선을 그어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① 이것과 저것은 본래 나뉜 것이 아니고, 나뉜 적도 없으며 나눌 수도 없다.
② 어리석음과 탐욕에서 비롯한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③ 둘로 구분 지어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사고방식은 끝없는 분열과 투쟁을 초래한다.
④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한 쪽을 우선시해야한다.
⑤ 상대의 신념과 주장을 악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악을 먼저 눈여겨 살펴야 한다.

해설 :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불교격언과 연결되는 가르침이다. 불교도들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편적인 진리와 합리적인 지혜로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인식)을 중요시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 어느 한 쪽만을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모두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3. '나를 비운다'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나를 비워야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② 나를 버려야 하므로 나는 세상에 없어도 된다는 의미이다.
③ 어딘가 버려야 할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버리면 행복하다.
④ 나는 발라드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러한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까지 버리는 것이다.
⑤ 나를 비운다는 것은 아집을 버린다는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 무아설의 문제이다. 불교에서 무아란 여러 가지 작용들의 구성물인 '나'는 고통이고 덧없으며 영원하지 않고 나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허무주의적인 이론이 아니라 개인의 아집을 떠나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나의 욕망이나 주관을 부여하여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4. 연기의 법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사례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② 부모님을 부처님 모시듯 항상 공경하고 감사하며 생활한다.
③ 나도 남도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긴다.
④ 귀하다거나 천하다는 분별심을 버리고 모든 대상을 평등하게 대한다.
⑤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기쁜 삶을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 노력한다.

해설 : 인간은 자연환경과 연기적 관계를 맺음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인간의 삶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자연환경의 개발이라는 말은 자연환경을 발전시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음으로 문제에서는 자연환경을 무시한 개발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답 : 1. ④ 2. ④ 3. ⑤ 4. ①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⑲ 승현 스님의 '추억의 별식, 국수라면'

▶한줄 요약
숟가락과 손으로 채소들을 투박하게 잘라 넣고 추억의 맛을 재현해 본다. 진한 된장과 라면 스프가 어우러진 국물, 온갖 채소와 국수가 더해진 든든한 한끼를 훌훌 들이켜다 보면 든든함이 차오른다. 라면 하나조차 '보양 음식'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는 가벼운 인스턴트 음식조차 영양 풍부한 양식으로 둔갑시키고 만다.



라면도 '보양식' 만든 귀하디 귀한 공양

"화엄벌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신라 시대에 원효 스님이 계실 때 이야기예요. 하루는 원효 스님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옛이야기가 노래처럼, 바람처럼 흘러 오른다. 저 푸른 산고지에서 선정에 든 원효 대사와 그를 찾아 신라의 땅을 찾아 헤매는 당나라 사람들. 그 모두를 품고 원효가 화엄경을 설했다는 저 천성산의 거대한 들판이.

듣는 이를 일순 천년 신라로 데려가 어느새 그날의 풍경과 하나 되게 하는 힘. 이 마법 같은 시간여행의 키를 잡은 선장은 바로 승현 스님(진주 보림사 주지)이다.

언제라도 그리운 화엄벌이다. 머리 위에는 광활한 하늘이, 발아래는 신성한 땅. 돌아보면 들꽃 같은 도반들이 미소짓던 그 산의 푸르른 벌판. 오늘 승현 스님의 '승소'는 그곳 화엄벌에 있다.



절에서 구할 수 있는 채소들을 툭툭 넣어 구수한 국물을 끓여내는 게 포인트다.



승현 스님은 선방 수행 중 맛본 라면을 떠올리며 "말할 수 없이 향긋하던 그 맛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승현 스님의 국수라면 (3인분 기준)

재료 라면(매운 국물 종류), 일반 국수 1인분, 재래식 된장 1.5 TS, 작은 감자 2, 애호박 1, 생표고 넉넉히, 콩나물 한 줌, 홍고추 1

만드는 법 ① 분량의 물을 끓인 후, 한입 크기로 잘라준 감자를 넣어준다. ② 애호박을 숟가락으로 툭툭 잘라내어 함께 익힌다. ③ 감자와 애호박이 반쯤 익었을 때 생표고, 홍고추를 큼직하게 잘라 넣어준다. ④ 라면 스프, 물에 갠 된장을 함께 넣어 끓여준다. ⑤ 먼저 라면을 넣어 익힌 후, 국수를 넣어준다. ⑥ 면이 익어갈 즈음 콩나물을 넣고 한소끔 끓여내면 완성.

마음의 고향에서

"제 추억 속의 잊히지 않는 국수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라면입니다(웃음)."

언제였던가, 승현 스님께 국수 이야기를 청한 날. 장고(長考) 끝에 조심스레 전하신 스님의 대답이다.

스님들은 국수를 좋아하여 '승소'라는 말이 있을 정도지만, 라면은 더욱 별식 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길 들은 적이 있다. 평소에는 쉬이 먹을 수 없어도, 감기에 걸려 열이 오를 땐 부러 매운 라면을 찾는 때가 있다고. 또 너무 담백한 산중식단에 지방 성분이 부족할 때면 보양식 대용으로 먹곤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승현 스님의 라면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먹고 싶다 하여 다시 먹을 수도, 또 같은 맛을 내는 것 또한 쉽지않은 특별한 한 그릇의 추억.

"천성산 내원사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내원사 선방에서는 3년 결사를 지냈어요. 꼼짝 않고 선방에 들어선 스님들도, 또 뒷바라지하시는 스님들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때 모두 함께 하루를 내어 산행을 떠났습니다. 제 추억 속 국수는 그날 함께 공양한 라면입니다."

작은 금강산이라 불릴 만큼 빼어난 산세를 자랑하는 경남 양산의 천성산.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산기슭에 자리한 천년고찰 내원사. 지금도 뭇 생명 살아 숨 쉬는 그 산에 스님의 추억이 머문다.

산행 가는 날

1300여 년 전, 원효 대사가 산사태 위기에 처한 당나라 운제사의 대중을 도력으로 구해내고, 이때 구출된 천 명의 대중을 이끌고 불법을 닦았다는 내원사의 창건설화. 그리고 원효 대사가 그 대중들에게 〈화엄경〉을 강설한 저 푸른 벌판이 바로 오늘날 천성산의 상징하는 화엄벌이다.

내원사는 6·25 전쟁 당시 도량이 소실되는 비극을 겪었지만,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3대 강백(講伯)으로 전해지는 수옥 스님의 원력으로 독립된 비구니 선원이 되어 새로이 중창됐다. 그리고 1979년 마침내 18명의 스님들을 필두로 첫 내원사 3년 결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 청청한 역사를 따라 수행의 결기를 높이던 시절. 천성산 산행은 절박한 수행의 나날 중에 모두의 기운을 돋우고, 다시 의지를 세우는 귀한 외유의 시간이었다.

이른 아침 길을 나서면 폐부를 가득히 채우던 맑은 산 공기의 맛은 여전히 생생하다. 그리고 삼삼오오 줄지어 산을 오르다 보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던 화엄벌.

그 황홀한 전경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어느새 시간은 천년을 거슬러 오래전 신라의 그 날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화엄경〉을 설하던 원효 대사와 천 명의 제자들 속에 승현 스님도, 또 곁에 선 도반들도 함께 살아 머무는 것이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간.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취사가 가능한 천성산 계곡에 도착한다. 비로소 이날의 특별한 만찬이 시작될 시간이다.

보통, 그 이상의 라면

"다 같이 메고 올라온 먹을거리며, 버너를 꺼내 공양 준비를 합니다. 저마다 맡은 대로 척척 준비를 시작하면, 다른 스님들은 산나물을 뜯어 오지요. 지천에 널린 참나물, 곰취, 달래 같은 것들을요. 다 모아 놓으면 그런 부자가 없어요(웃음)."

라면이라 하지만 속세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바로 천성산이 주는 풍성한 산야초가 그 맛의 진짜 주인공이다.

"먼저 팔팔 끓는 물에 라면 스프를 넣고, 반드시 된장을 함께 넣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챙겨온 감자며 콩나물, 직접 키운 호박, 표고버섯 등을 먼저 끓여요. 그래야 국물 맛이 좋고, 영양도, 간도 맞거든요."

구수한 국물 냄새가 진동하면 이제 라면을 넣을 차례. 특별한 별식인 만큼 먹는 방법도 차례가 있다고. 무엇보다 갓 딴 산야초를 뜨거운 채수에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첫 순서다. 입안 가득 차오르는 향긋한 내음에 감탄이 절로 나는 순간!

다음으로는 잘 익은 라면을, 그리고 마지막엔 산채 향이 푹 우러나온 국물에 국수를 끓여 마무리한다. 라면은 쉬이 구할 수 없으니 조금 적게 넣고, 대신 국수로 부족한 양을 채우는 것. 숟가락으로 푹푹 잘라 넣은 감자며 호박. 툭툭 뜯어 넣은 표고버섯은 얼마나 달큰하던지.

"산중에서 그보다 더 좋은 보양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향긋하던 그 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산의 품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수행자들에게만 허락된 귀한 한 끼. 가장 소박하고도 무엇보다 호사했던 그 날의 공양은 아직도 그 힘을 발휘 중이다.

가장 좋은 것

"이 국수라면은 칼질보다 이렇게 숟가락으로, 손으로 투박하게 잘라 넣어야 맛있어요."

비록 오래전 그 날의 산야초는 구할 수 없지만, 툭툭 호박과 버섯을 잘라 넣고 추억의 맛을 재현해 본다. 진한 된장과 라면 스프가 어우러진 국물, 온갖 채소와 국수가 더해진 든든한 한 끼가 스님의 빠른 손끝에서 뚝딱 차려진다.

훌훌 들이켜다 보면 어느새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라면이 아니라 마치 국밥 한 그릇을 해치운 것처럼 든든함이 차오르는 한 그릇. 라면 하나조차 '보양 음식'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는 가벼운 인스턴트 음식조차 영양 풍부한 양식으로 둔갑시키고 만다.

"얼마나 복이 많은 생입니까. 인간의 몸을 받아 불법을 만났습니다. 이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생각이 매일 더 합니다. 스쳐 가는 아름다움이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토록 무한하고, 위대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화엄경〉 독송을 멈추지 않는 승현 스님의 하루.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갖기를 기원하며 매일 선방에 들던 젊은 날의 그때와 오늘이 다르지 않다.

이제는 사라진 천성산의 군부대며 지리산 천왕봉으로 향하던 깊은 산길, 화두를 들고 올라 잠시 머물다 오던 산정상의 그 자리까지. 스님의 막힘없는 기억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시간을 엿본다.

영원한 진리를 깨닫길 바라는 수행자의 마음이 머무는 곳. 천 개의 별이 빛나는 그런 벌판이 있다.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작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흙물도 맑은 물로 바꿔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정물을 새 물로 바꿔 쓰라

질문 큰스님 법문에 구정물을 새 물로 바꿔 쓸 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닦아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이 마음을 닦는 법이란 먼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면 바로 굴려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굴려 놓을 줄을 안다면 굴려 놓고서 다시 끄집어내서 착을 가지고 쥐고, 놓질 못해서 다시 쥐고 나오는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지름길입니다. 가정에 어떠한 애고가 닥쳐도 타파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놓고 가는 도리입니다. 지혜롭게 바로 돌려놓는 그 자체 말입니다.

우리가 "돌려놓는다 돌려놓는다" 하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고, 일이 닥쳐오는 거는 체가 없는 데서부터 체가 있는 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이 꼬여 들어가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바로 바깥으로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떠한 일이든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마음으로 꼬여진 거니까, 마음에서 모든 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상대가 되고, 상대가 벌어지고 얽혀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해결을 할 수밖엔 없는 거죠.

그래 만약에 한 가정에 구정물이 닥쳤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돌려놓는데, 맑은 물로 돌려놓는다면 맑은 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마음이 밀가루라면 밀가루만 고집하지 마시고, 밀가루가 화해서 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수도 될 수 있고 만두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은 원자에서 바로 분자로, 인연에 따라서 가공돼서 하나의 만두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어 잡숴라 이 소립니다.

모두가 그냥 '어렵다, 아주 괴롭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개시해서 바로 실천을 하시는 데에 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발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마음의 발전이 아니라면 극난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만큼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경험을 했고 그 모든 것이 한마음 바로 근본, 영원한 근본, 그 근본에 종합돼서 그 재료가 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입력이 돼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용도에 따라서 닥쳐오는 그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한두 건입니까?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 그거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어디서부터 오는가? 천차만별의 애고가 다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자기가 지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은 데다가 도로 놓고 굴려 놔라 이 소립니다. 한두 건이 아닌 그 유전성,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인과성이나 영계성이나 업보성이나 세균성이나 이 모두가 바로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올 것이고요.

그런데 삼세를 다 통치하고 한 일심으로써 실천궁행하려고 하고 자유인이 되려고 하고 만물의 영장이 되려고 하고 부처가 되려고 하고 법신이 되려고 하고 관세음, 지장 모든 것이 다 자유스럽게 되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흙물도 맑은 물로 바꿔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체가 다 한군데서 들고 나는 것이니까 한군데로 놓는 작업만 잘하시고, 굴려 놓는 작업만 잘하시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이 투철하다면, 그리고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믿는 그 마음이 투철하다면 바로 일체 만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타파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구정물을 새 물로 바꿔서 먹어라 하는 것이, 물뿐이 아닙니다. 물은 어디에도 들어갑니다. 물 안 들어가는 데 없지요? 일체가 물 안 들어가는 데가 없지요. 인간도 피가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피도 물이니깐요. 모두가 이 물 안 들어가는 데가 없듯이 우리 마음 이 자체가 바로 굴려서 놓고 바꿔 놓는 데 의미가 있고 묘미가 있고, 아주 지혜로운 실천이 나옵니다. 봤으면 진짜로 믿고, 도로 뺏어 가지고 나오진 마십시오.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누굴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무슨 스님네들 고깃덩어릴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마음의 주인을 진짜로 믿어야죠. 자기 마음의 주인만이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거부터 알아야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도 거기에 한 찰나에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 하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정신계, 마음의 어버이가 된단 말입니다. 정신계의 어버이가 되죠. 구차하게 이 모습을 가지고 또 나오지 않고도 말입니다. 마음의 어버이가 돼서, 정신계의 어버이가 돼서 모든 여러분의 마음에 그저 마음을 먹기만 하면 그대로 응해 주는 그런 법신, 응신, 관세음, 지장, 용신, 지신 뭐, 아니 되는 게 없이 다 되시면서 그렇게 응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 벗어날 길은 이 길밖엔 없는데 좌천이냐 승진이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중세계에 지금 살고 있으니깐요.

그런데 제일 바빠야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여러분 사는 것이, 지금 살 양으로 재산, 돈, 옷 좋은 거, 집 좋은 거 전부 이런 거 허무맹랑하게 찾는 것이 급한 게 아닙니다.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 꾸러 가지 않고, 그저 굶지 않고, 옷 헐벗지 않고, 길거리에서 자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자기 몸뚱이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거 쓰다듬고 매일같이 세수하고 수염 깎고 모두 했던 거를 그냥 몽땅 다 버리고 갑니다. 하이구! 그 이뻐하고 미워하고 했던 거를 말입니다. 이 정 저 정 다 든 거를 다 버리고 가요, 그냥. 아이, 그렇게 해 놓고선 뭐 가질 게 있습니까?

역시 마음 닦아서 내가 이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나야 내가 자유롭게 일체 만물 만생이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자리 아님이 없고, 정신계의 혹성이나 어떠한 별성이든 그 속에 들어가면 나 아님이 없고 내가 아니 되는 게 없고, 태양에 들어가도 내가 태양이 되고, 내가 은하계에 들어가면 내가 은하계가 되



그림 · 최주현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발전이 아니라면 극난한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없다

☞ 19면에서 계속

고, 달에 들어가면 달이 되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어떤 사람이 응해 달라면, 돼지가 응해 달래도 돼지 속으로 들어가면 돼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시키는 바로 정신계의 어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름해서 부처라고 했던 것은 바로 상하가 없이 모두, 스님들끼리 살 때는 스님이 높고, 상인들끼리 살 때는 상인이 높고, 뱃사공은 뱃사공대로 높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높고, 제가끔들 가난하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그 집안에서는 다 높은 분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못났어도 내 가정에선 내 남편으로서 제일 높죠. 안 그렇습니까? 그 가정에선 내 자식으로서 제일 높고, 내 부인으로서 제일 높고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래서 부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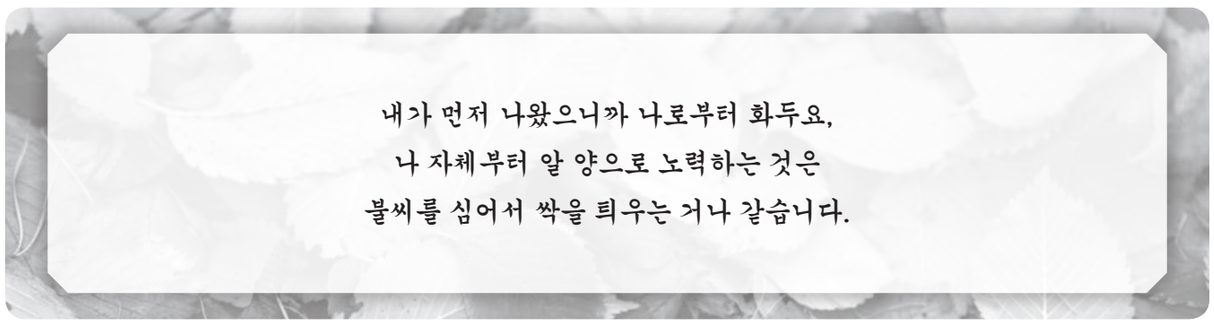
부처라는 것이 '나는 깨쳤다, 내가 제일 높다' 하는 그런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높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뜻에서 부처라고 이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 하시는 데 될 수 있으면 거기다 맡겨놓고 도로 쥐고 나오지 마시고, 맡겼다가 도로 들고 나오면은, 서류를 도로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몇 사람 말고는 전부 들고 나와요, 도로. 하하하. 그러고는 안 되느니 되느니 하고 야단이에요. 왜 맡겼는데도 안 되느냐 이거죠. 아, 잘 맡겼으면 그럴 리가 있겠나요. 못 맡겼으니깐 그렇죠.

전생의 죄업 때문인지

질문 저는 마음공부를 그래도 몇 년 해오고 있는데 되는 일이 없어 자꾸 맥이 빠집니다. 전생에 죄업이 많아서 그런 건지, 마음공부를 제대로 못해 그런 건지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체 만물만생에 의해서, 내 몸속에 있는 그 중생들이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곤충들, 하다못해 무정물까지도, 목신까지도 원한다면 다 응해 주십니다. 응해 주시되 묘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뱀이 공부를 하면서 원하면 한 찰나에 드실 때 뱀으로 응하신다 이겁니다. 뱀으로 응하셔야 뱀이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습을 천태만상으로 나투시면서 응해 주십니다. 관세음보살을 관하면 관세음보살로 나투어 주시고, 지장을 염하면 지장으로 나투어 주시고, 약사를 염하면 약사로 나투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풀포기 하나까지도, 곤충 하나까지도, 안 보이는 세상의 모두를,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또는 죽은 생각이나 산 생각이나, 생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다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를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서 무조건, 조건 없이 자식들에게 주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베풀어 줄 때에 그 마음의 보시, 이것은 제일 으뜸 나는 무주상 보시입니다.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마음, 조건 없이. 물질을 주더라도 조건 없이 주는 보시. 조건이 조금이라도 붙었다 하면은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면, "너는 죄가 얼마만큼 있고 너는 죄가 얼마만큼 있으니까 이것이 안 된다." 이럴 수가 없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으려고요.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말입니다, '나는 죄업이 많으니까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 또 '나는 이런 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보가 다 녹아야 된다'는 조건, '나는 이러한 병이 걸렸는데 과거로부터 이 업보가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에서 그, 조건 없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배우고 아는 사람들은 조건 없이 줘야만이 마음으로도, 길을 지나가다가도 하다못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도 무명을 벗겨 줄 수 있고, 그 소의 의식을 바로 나한테로 넣는다면 즉시 그건 죽지도 않아서 벌써 환토를 한 거죠. 천도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명을 벗고 사람이 돼서, 굴려서 사람으로 환생을 할 때 그 소는 은혜를 생각해서 이 불법에서 떠나지 않게끔 됩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끝 간 데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진리 속에서 우리들이 인연에 따라서 활짝 개이기도 하고 인연에 따라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데로 이끌리기도 하죠. 이 몸뚱이 속에는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데로 이끌어 주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데로 이끌어 주는 그런 수십억의 중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도 가끔 하죠. 팥죽을 쑤는데 끓어오르는 팥죽 방울을 보고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주걱으로 쳤다는 얘기 잘들 아시죠. 그 주걱으로 죽 방울을 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뜻을, 그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또는 경을 달달 외워서 강의를 잘하고 이런 게 참선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 무지렁이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법을 한시라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게 참선이죠. 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나로부터 화두요, 나 자체부터 알 양으로 노력하는 것은 불씨를 심어서 싹을 틔우는 거나 같습니다.

이 모두가 이러한 관계상 인과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것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동적인 법칙입니다. 모든 만남이, 교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발전을 하고 또는 '이것이 안 된다, 된다' 하고 법석이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거를 가만히 생각한다면 '아이고!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이거, 이거 뭐,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해서야 나라가 잘될 수 있어?' 이러지 마는 부딪치지 않는다면 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하하.

이 모두가 상대적인 원리로서 이렇게 가는데, 부처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선(禪)이다' 그런다면 이거를 붙이고 안 붙이고를 떠나서, 인연에 따라서 딱 붙이면, 즉 전선줄과 전선줄을 한데 붙이면 불이 확 일어나서 불이 들어오는 그 광명을 바로 선이라고 하는 건데 양면의 이 줄을, 갖다 붙이는 줄을 가지고 이게 틀리다 이게 옳다 하니까, 그래서 "놔라"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놔라. 물질계와 정신계를 그냥 놔라. 놔야만이 이게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모두가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중심이 일체를 다 자동적으로 굴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하나는 움쭉도 안 합니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우주가 다 망가진다 하더라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꿈쩍도 안 하는데, 그게 왜 꿈쩍도 안 하느냐. 은하계의 중심도 태양계의 중심도 이 우주의 중심도 이 인간의 중심도, 모두가 중심은 하나로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은하계에서 태양계로, 태양계에서 지구로, 허허. 모두 별성이나 혹성이나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에너지 광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뒷면에서 나오죠, 중심 뒷면에서. 우리가 마음의 샘터다 하는 것도 모두가 서로서로 연관성이 있음으로써 이 마음의 샘터에 샘도 나올 수 있고, 그냥 누구나가 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아예 쓸모가 없어.' 그러고 그냥 다 내치면 아예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산 송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잘 가는 동안에 의욕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기고, 얼굴이 좋아지고, 다복해지고, 짜증도 안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조그만 것 하나로부터 큰 우주의 삼천대천세계를 집어먹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집어먹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나를 죽여서 내가 될 수 있어야만이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이 몇 마디 안 해 드리는 것을 잘 참작하셔서 행하세요. 스님네들은 신도들을, 법우님들을 만날 때 무조건, 이유가 없어야 하고 신도님들은 신도님들대로 믿음이 진실해야 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하고, 또는 마음과 마음,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도리를 알아야 하고,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고 일체제불의 마음, 이 스님들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먹는 대로 한 찰나에 들고 한 찰나에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질문 요즘은 신심이 나서 매일 새벽예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서 빨리 이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아침저녁으로 관하는 시간도 갖고 열심히 정진하려고 합니다.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더 마음을 급히 서둘지 마세요. 언제나 사람은 인내력이 있게 노력하면서…, 반드시 참아서가 아닙니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참아서 놓는 거하고 인내력이 있어서 꾸준한 거하곤 달라요. 내가 꾸준히 간다고 할 때 다리가 안 아프지, 그냥 '저기 얼른 가야 할 텐데…' 한다면 다리가 끊어지는 것같이 아프죠. 뭐가 그렇게 바삐 갈 일이 있어서 그냥 마음을 바쁘게 두고 그냥 막 육신을 틀겠소?

그래 그전에도 산길을 막, 그 오밤중에도 걸어 보면, 가는 문패를 붙여 놓은 갈 데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유유히 걷지, 그 막 그냥 생각을 하고 빨리 가겠다고 하니까 다리가 아픕디다. 그런데 백 리, 이백 리, 삼백 리를 걸어도 여기서 처음 발떼어 놓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은 꾸준해야 돼요. 꾸준하고, 지켜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간다면 무슨 일인들 못 하겠소.

이 우주의 섭류를 내 한마음의 섭류로 생각하고 모든 걸 운용해 나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근본 내가 모든 일체 만법의 기구, 한데 합쳐진 종합기구가 여기에 있어요, 모두. 종합 기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위치만 누르면, 이 방면의 스위치를 끼우면 이 방면이 해결돼 돌아가고, 이 방면에 끼우면 이것이 돌아가고, 저 방면에 끼우면 저것이 돌아가고 아, 그렇게 만법의 근원이 여기 있는데 뭐가 그렇게…. 동그란 보당 속에 다 만법이 들어 있는데. 이 육체 내의 모든 것도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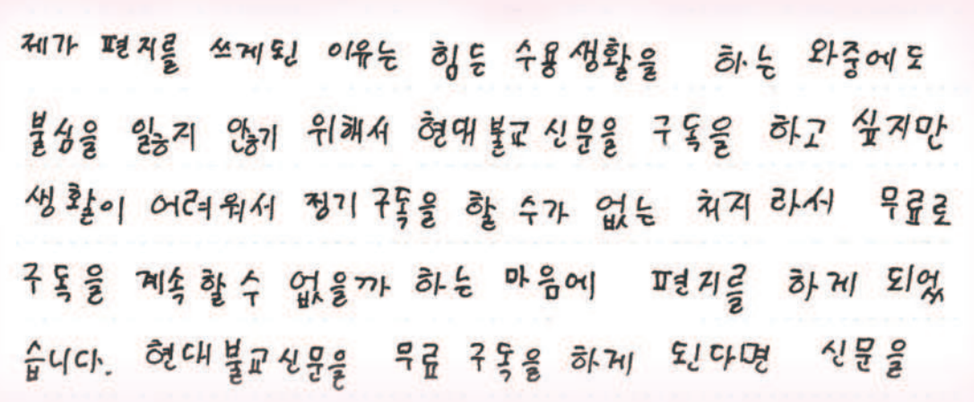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㉑ 무언가 되려고 하면 한정된다

본래 생명인 부처님생명을 드러낼 뿐

오늘 새로이 태어난 생명이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롭게 태어나지고 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고 네가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새롭게 만나고 너를 새롭게 만나는 시간. 그때가 바로 '태어나는 순간'이 아닐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살려주시는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숨'을 통해 가장 먼저 느낀다. 지금 이 순간, 코를 통해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 있을까? 숨이 막히지 않고 몸을 돌고 나가고, 햇빛을 받고 땅을 디디며 이렇게 존재하는 자체가 수많은 공급이 이뤄진 인연화합의 결과다. 그 살려짐의 결과를 이름해서 '나'라고 부를 뿐이지, 내가 따로 없다고 법문에서 늘 배운다.

한탑 스님의 〈금강경법문〉 윤독 시즌5가 118일간의 여정을 회향하고, 수계법회를 기다리며 시즌6 시작 전까지 며칠간 방학을 맞고 있다. 방학임에도 매일 아침 온라인에서 모여 복습을 하고 있다. '내가' 있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도반들이 함께 법문을 목숨처럼 모시고 서로를 살려온 공덕이 아닐까 한다.

시즌1 첫날부터 함께 해온 보영 님께서 "오늘은 울컥하네요. 문득 개경게가 생각났습니다. '위 없이 높고 깊은 미묘하신 가르침, 영원토록 만나 뵙기 참으로 어려운데,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 지니어, 부처님의 참되신 뜻 알아지이다'라는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다섯 번째 공부를 하면서는 맨 앞에 크게 '행할 행(行)' 자를 썼었는데, 참여하면서 행이 닦아졌기를 바래봅니다.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이 263쪽, '이렇게 참는 것이 당장은 잘 안됩니다. 나를 앞세우는 습이 여간 강한 게 아닙니다. 그때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야 합니다.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너는 부처님이야 하면서 날 불러 주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 이름을 부를 때, 그 한마디 속에 몸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염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나를 나무아미타불로 부르실 적에 그 속에 온갖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를 부처님으로 불러 주고 계신 부처님! 참 고맙습니다'에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하면서 살고 싶습니다"라며 법담을 열어주셨다.

그러자 현석(가명) 님께서 "저는 481페이지, '우리 본래 생명인 부처님생명을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드러내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그뿐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서 무엇인가 된다고 한다면 한정되는 것입니다. 한정되지 않는 것이 절대무한이지요. 다만 나

내가 사는게 아니라 살아지는 것

염불로 나를 앞세우는 습 지워야

무아미타불입니다' 하는 법문을 새겨봅니다. 제가 1979년도에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대학교를 거쳐 지금까지 뭐가 되려고 살아왔던 거 같아요.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고, 직장도 얻어야 되고, 가정도 일궈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법회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았더니 남는 건 항상 부족함이었고 결핍감이었어요. 이루어야 할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있던 것이 물론 발전의 과정이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누리면서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자람 속에서 뭔가를 더 구하고 허덕였어요. 심지어 법회를 참석하고 수련회를 가고 법문 들으며 염불하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남는 게 있었어요. 아마도 '내가 한다'라는 미세한 아상이었던 거 같아요. 신해행증(信解行證), 이 말을 내가 믿어서 이해하고 행해서 그 결과를 내가 확인한다, 즉 내가 깨닫는다, 식으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서 많이 헷갈렸던 거 같아요. 미세하게 남는 '나'라는 아상. 법회와서 법문 듣고 함께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살려지는 것이라고,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산다'고 알려주시네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한다고 하는 내 의지가 내 의지가 아니구나'하는 걸 조금 더 느끼게 되면서 안정이 되어가요. 물론 그것도 아상을 강화하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새삼 '무엇인가 되려고 한다면 한정된다'는 말씀에 마음이 닿네요. 공부한다 하면서 사실은 공부를 거꾸로 했던 거죠. 다 분별상이죠. 분별 이전으로 돌아갈 때 다같이 만날 수 있음을 느낍니다. 이름만 부처님생명일 뿐 다 같은 생명자리인데, 날카롭게 대했던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저 자신에 대한 참회의 마음이 많이 드네요. 미세한 내가 마음 깊숙이 똬리 틀고 있었던 오류가 뼈 아프게 다가와서 이렇게 〈금강경법문〉을 공부하는 법연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긴 소회를 나눠주셨다.

좋은 도반을 만났다는 것은 공부의 모든 것을 이룬 것과 같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현장이 아닐 수 없다. 나를 그대로 비추어주는 너를 통해 닦이는 공부시간, 유불여불, 부처와 부처끼리! 함께 법문 듣고 스스로를 비추어보아 염불로 수행하는, '문사수(聞思修)하는 법회'에서 도반님들과의 새인연을 기대하며 시즌6를 맞이하고자 한다. 나무아미타불!

(금강경법문 온라인윤독 문의 bowon9@hanmail.net)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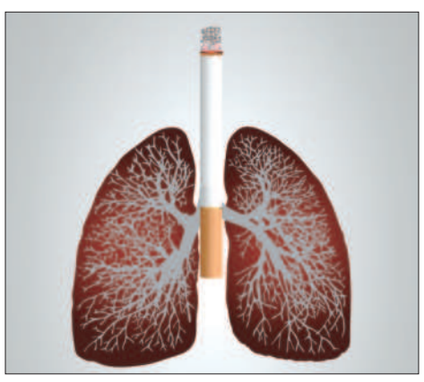
㉗ 무섭고 치명적인 '폐암'

암 사망자 수 1위 '폐암'…조기발견 중요

폐암은 기관지나 폐에 생기는 악성종양을 말한다. 폐암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담배다. 전체의 70%가 흡연과 관련되어 있지만, 최근 비흡연자 폐암도 증가하고 있다. 비흡연자의 원인으로는 간접흡연, 석면, 기타 중금속, 대기오염, 미세먼지와 유전적 요인 등이 관련이 있다. 폐암 발생빈도는 남성이 위암에 이어 2위, 여성이 5위이다. 그러나, 암 사망자 수는 1위인 무서운 암이다. 폐암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조기 진단 비율이 낮고 재발률이 높기 때문이다. 폐암은 폐암만이 가진 전형적인 증상은 없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흔한 증상은 기침, 가래, 객혈, 숨참, 흉통 등이 있으며, 간혹 폐의 꼭대기 쪽에 암이 발생하면 어깨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자각증상을 느끼고 병원 진료 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폐암이 무섭고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증상에 예민해져야 한다. 또한 증상이 오래 지속될 경우, 반드시 저선량흉부CT 등의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폐암은 비소세포암(Non-small cell carcinoma)과 소세포암(Small cell carcinoma)으로 나눌 수 있다. 소세포암은 비소세포암에 비해 악성도가 강하며 전이가 잘되는 경향이 있어 수술적 치료보다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가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 비소세포암은 폐암의 85~90% 차지하며, 조기발견 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암이다. 종류로는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 선암(Adenocarcinoma), 대세포암(Large cell carcinoma)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소세포암 치료는 완치를 목적으로 수술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는 수술 전 또는 후에 하거나, 수술 적응증이 되지 않을 때 고려될 수 있다. 환자의 전신상태, 심폐기능,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수술을 시행한다. 비소세포암에서의 수술은 진단적 목적으로 하는 수술과 치료적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있다. 치료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경우는, 임상병기 1기, 2기, 3기 폐암 일부에서 시행하고 완치 목표를 두고 수술한다. 수술 후 확정된 병리적 병기가 2기 이상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 항암치료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진단 수술은 폐암의 병리세포학적 확인 및 정확한 병기 설정을 위한



전형적 증상없어 발견 어려워

진단시 5년이상 전문치료 필요

조직을 확보하고자 시행한다. 소세포암의 경우는 매우 공격적이며 전이가 잘되는 특징이 있어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가 주 치료 방법이다. 제한적인 병기일 경우, 선택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폐암 수술 방법은 폐절제 부위 및 범위에 따른 방법과 폐암 수술의 피부절개부 범위에 따른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폐는 해부학적으로 우측폐는 우상엽, 우중엽, 우하엽 3개로 나눠지고, 좌측폐는 좌상엽, 좌하엽 2개의 폐엽으로 나눠진다. 폐절제부위 및 범위에 따른 방법으로 폐엽절제술(lobectomy), 폐이엽절제술(bilobectomy), 전폐절제술(pneumonectomy), 폐엽소매절제술(sleeve lobectomy), 폐구역절제술(segmentectomy), 쐐기절제술(wedge resection)로 구분할 수 있다. 폐암의 표준수술은 폐엽 전체를 떼어내는 폐엽절제술과 종격동에 림프절을 제거하는 종격동림프절청소술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변형수술 방법으로 기관지나 분지부에 암이 존재할 때는 폐엽소매절제술을 할 수 있다. 초기암이나 폐기능이 좋지 못한 경우에 폐엽전체보다 작게 폐를 절제하는 폐구역절제술 또는 쐐기절제술을 시행된다.

피부절개부 범위 및 침습도에 따른 방법으로는 개흉수술과 최소침습수술로 나눌 수 있다. 개흉수술은 고식적인 방법으로 20cm이상 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갈비뼈도 부러뜨리고 늑간견인기를 이용하여 갈비뼈 사이를 벌려 폐절제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은 대부분 최소침습수술로 진행되며, 꼭 필요한 경우만 개흉술로 수술을 한다. 최소침습수술에는 흉강경수술, 로봇수술 등이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수술은 이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슴에 1개에서 4개의 구멍을 만들고 내시경 수술용 기구를 이용하여 수술을 진행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암치료는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 그러므로, 심장혈관흉부외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핵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등의 폐암진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폐암의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병의 진행 등에 따라 각 과의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의 치료과정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암이 진단되고 나면 5년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병원진료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편안하게 상담하면서 다닐 수 있는 병원, 접근성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추천한다.



최재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AI와 붓다 2.0
본 월 09:30 재 월 21:30 / 화 15:30



꽃보다 출가
본 화 09:30 재 화 21:30 / 수 16:30



한국의 세계유산, 그 숨결을 찾아
본 화 12:00 재 화 22:30 / 토 16:00



자현스님의 열반과 깨달음
본 수 07:30 재 수 20:30 / 차주 월 13:00



마음 여행을 위한 GPS 명상
본 수 13:00 재 수 23:15 / 일 14:00



뜰 앞의 잣나무
본 목 12:00 재 목 22:30 / 일 15:00



법장스님의 투게더
본 금 07:30 재 금 16:00 / 일 23:15



박문호 박사의 빅히스토리
본 금 12:00 재 금 23:15 / 일 13:00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
본 화 07:30 재 화 19:30 / 토 12: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전법 일기

곳곳서 누구와도 하나 되면 상대 헤아리는 사랑 피어나

다양한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추를 잘못 끼워서 많은 세월을 고통 속에서 지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나 역시도 사랑을 잘 몰라서 헤매기도 하고 아픔도 겪고 했는데 나의 뿌리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가가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으로 올해 5월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사랑 명상 수업을 하게 되었다. 수업을 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다. 여러 가지의 표정 그림 중 최근 감정을 체크해 보는 시간이었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라는 표정을 고르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래서 "다음 달 수업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할까요"라고 했더니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수업 후의 학생들 피드백 몇 가지를 소개한다.

△작은 파도들의 일렁임 탓에 내가 바다인 것을 잊지 마렴. 사랑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줘. △육신에 끌려가지 않고 나의 뿌리에 기대어 모두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너무 집착하게 되면 상대방이 지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내 안의 참나와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다. △마음의 걱정, 슬픔 등을 근본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좋았다.

이런 피드백을 보면서 아이들이 집착과 욕망으로 포장된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재밌게 관찰되었던 점이 있다. 학생들이 러브스토리보다도 참나와 소통하는 경험담을 들려줄 때 훨씬 더 숨을 죽이고 집중해서 듣는 점이었다. 그것을 보면서 '누구나 자신의 근본을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학생들과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기쁨이 크다.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는다. 나도 바깥으로 사랑을 구하다가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내면으로 몰입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이미 사랑이 충만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육체적인 사랑에도 많이 끌려간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행하실 때 미녀가 유혹해도, 아홉 마리의 여우가 나와서 꼬드겨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바로 내 안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환상에 끌려가지 않은 것이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어떤 것도 둘로 보지 않는다면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내면서 어원을 찾아보게 되었다. 사랑은 사량(思量)에서 나온 말로 '생각하여 헤아린다'는 뜻이다. 즉,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서 하나가 되어 주는 마음이다. 그것을 실천하려면 모든 것을 근본으로 되돌리면 된다. 왜냐하면 근본은 모두와 하나가 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근본을 통해서 누구와도 하나가 돼 주는 사랑이 곳곳마다 피어나기를….



혜벽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송마나의 **시절인연**

그날 태평호엔 하늘이 내려 앉았다

11월은 가을빛을 밀어내고 겨울 곁으로 다가가려고 한다. 단풍마저 떨어진 헐벗음으로 일찍 적멸에 드려는 것인가. 추수를 끝낸 들판은 메마른 들꽃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바람에 날려 보낸다.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던 첫해에 중국 황산을 찾아 나섰다.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시골의 논두렁 밭두렁은 원초의 자연으로 기쁨이 넘쳐흘렀다. 굽은 길을 돌아서니 아스라이 바다가 보였다. 운전하는 기사님이 바다가 아니라 태평호(太平湖)라고 알려주셨다. 호수에 안개가 드리웠다. 드넓은 호수 건너편으로 야트막한 산들이 수평선처럼 아스라이 가물거렸다. 잔잔한 물 위에는 고기잡이 조각배 한 척이 떠있었다. 나는 자동차를 멈추게 하고 산수를 바라보았다. 그림으로만 보았던 동양의 수묵화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무채색 풍경은 먹물의 흑백 농담으로, 그나마 물로 희석되어 연하게 그려졌다. 멀리 있는 산들의 형태는 분명하지 않다. 산의 뾰쪽한 봉우리가 강물 속으로 깎아내린 것 같다. 소나무로 태어나려면 황산의 소나무로 태어나라고 했던가, 기기묘묘한 자태를 뽐냈던 소나무들도 물속으로 무너져 내렸을 게다. 원근법이 더는 의미가 없었다. 먼 것과 가까운 것이 하나 되어 펼쳐졌다. 안과 밖의 분별은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림 · 최주현

태평호에 하늘이 내려앉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분할 수 없는 광대무변한 호수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떠 있는 작은 배 한 척이 허허롭다. 고기잡이배는 위치를 고정화하거나 개인화하지 않고 물결 따라 흘러간다. 두 발로 디디고 선 땅의 물리적 위치와 넓이를 탐하는 인간의 욕심이 하찮게 느껴졌다.

배 안에 언뜻 사람 하나가 보이는 듯하다. 그 사람은 얼굴 내밀기를 저어하며 풍경의 주인 노릇을 하려 들지 않는 것 같다.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빈 낚싯대를 드리우고 산수 속에서 노닐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그는 세계의 비밀을 다 알아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혼란한 세상에서 벗어나 산과 하늘이 삼투하는 강물 속으로 스며들어 한 폭의 자연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견자(見者)의 마음은 이 세계보다 클 테지만 화폭 속에서는 가물가물 왜소하다.

밋밋한 수묵화는 도무지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이라고는 없다. 다채로운 빛들은 산수의 내면으로 잠기고, 기하학적인 선이나 감각을 자극하는 그 무엇도 없다. 견고함을 걷어내고 무거움에서 벗어난 담담한 풍경이 오히려 마음을 그윽하고 충만하게 한다. 강렬한 맛은 우리를 매혹하고 흥분시키지만 곧 물을 찾게 한다. 밍밍한 맛은 처음에는 자극적이지 않지만 차츰 변화하여 진정한 맛을 드러낸다. 무미(無味) 한 맛과 같은 풍경은 일시적인 강렬함이나 허탄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이윽고 그 무위(無爲)의 풍경은 우리의 눈을 밝혀 자연의 안쪽으로 이끌어 간다.

풍경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차츰 열렸다. 산과 강 전체가 보였다. 태평호에 떠 있는 고깃배의 사공이 물이 되고 산이 된다. 산수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사라지고 풍경 자체가 된다. 조각배에 몸을 싣고 가뭇없이 흘러간다. 인간의 마음이 자연과 하나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 바로 법열(法悅)의 세계 아닌가. 〈작가〉

기자칼럼

부처님 가피 전하는 치안도량 '불심원'

지난 9월, 서울 강남구민의 파수꾼으로 안전을 돌보는 수서경찰서에 법당이 들어섰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불사로 5년 만에 문은 연 '불심원'이다. 부처님 자비와 깨달음이 모인 곳이라는 의미가 담긴 이 법당은 2평 남짓한 소박한 공간이다.

10월 25일, 단장을 마친 '불심원'에서 첫 법회가 열렸다. 경찰 포교의 씨앗이 싹트는 순간이다.

수서경찰서 내 법당은 5년 전, 경찰서가 본관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여유공간 부족이라는 이유로 문을 닫았다. 이후 코로나19가 닥치며 법당을 다시 열 동력을 잃었다. 그러다 별관이 세워지고 여유 공간이 생기면서 5년 만에 '불심원'이라는 이름의 법당으로 문을 열게 됐다.

경승실이기도 한 불심원이 문을 연 배경에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탄허기념박물관장 혜거 스님으로부터 경승실장 소임을 넘겨받은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경승실을 단장하기 위해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사부대중과 불사금 모연에 나섰다. 소중한 삼보정재로 불단 장엄과 인테리어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

거점 도량이 사라진 5년 간 회원 이탈이 이어지며 단체가 해체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법당이 개원하면서 수서경찰서 불자들은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행활동을 할수 있게 됐다.

불심원 회원들은 수서경찰서 직원들은 물론 인근 거주하는 경찰들에게도 공간을 열고 함께 월 2회 기도와 명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관은 24시간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많은 현장에서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 그런 경험을 불교를 통해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게 만들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불자경찰 마음케어뿐 아니라 포교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비구니스님 원력 아래 부처님 가피를 전하는 치안 도량 '불심원'이 경찰들이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길에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길 기대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아들 희귀병에 홀로 벌이는
엄마의 외로운 싸움

스리랑카 이주민 김제이씨 아들 노강현군
관절에 종양 자라는 희귀병, 이미 수술만 16번
성인 될 때까지 최소 10년간 수차례 수술받아야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출가를 준비하자

현불논단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다./ 집 짓는 자여, 드디어 그대는 드러났도다./ 다시는 그대가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모든 골재는 무너졌고,/ 집의 서까래는 흩어졌다./ 이제 마음은 업의 형성을 멈추었고/ 갈애의 부서짐을 성취하였다.

이 구절은 법구경의 게송으로 부처님께서 마왕 파순에게 승리를 얻으시며 말씀하신 내용이다. 여기서 파순을 '집 짓는 자'라고 지칭하여, 고타마 싯다르타라는 속박된 자아를 타파하고, 자신의 내면을 확인하여 깨달음을 얻은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의해 갖춰진 것들이 자신의 모습이며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모습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쉼 없이 어딘가를 향해 매일을 살아간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무언가에 의지되어 형성되고, 추상적인 일상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 해답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설한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간다. 그러나 그 '행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이 성찰해봐야 한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행복할 때 그것을 가족, 사랑하는 사람, 나아가 누군가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발견을 불교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수행으로 여긴다.

'出家'는 욕망이란 '집'의 해체
연말, 안주하려는 집서 나와라
속박서 벗어나 환희로운 삶 살길

마왕 파순은 우리의 또 다른 내면이다. 욕망과 집착으로 이루어졌고, 무언가와 타협시켜 적당히 끝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파순의 실체이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그걸로 충분해'라며 안주하게 된다.

불교는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의 가르침을 설한다. 이것을 모르고 영원하고 불변한 존재를 추구한다면 언제나 괴로움(苦) 밖에 없는 것이다. 무아이기에 우리는 어떤 한 존재나 개념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집 짓는 자'라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그 '집'이라는 속박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설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을 구성하는 골재와 서까래도 결국은 흩어져 그 형태조차 남겨지지 않기에 무엇에도 집착하고 영원하기를 바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출가(出家)'가 '가출'과 다른 것은, 집을 나오는 것이 아닌 집을 해체하는 것이다. 기존의 삶이나 일반적 관념에 의해 자신을 규정하고, 그 선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출가적 삶'이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을 작년과 같이 보내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한다면, 그 시간 속에는 참다운 보냄과 또 다른 맞이함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연말과 새해가 새롭고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안주하려는 그 자리에 있는 집에서 나와야 한다.

출가를 준비하자. 아무 목적 없이 보내던 그저 그런 하루의 줄을 자르고, 낡고 색 바랜 일상의 옷을 벗어던져, 스스로 행복하기 위한 서원을 세우고 환희롭고 빛나는 오늘 하루를 살자. 그동안 자신의 모습이라 여기며 그렇게 살아오던 속박을 떠나,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과 그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출가를 하자.

추운 겨울, 산새에게 헌식 공양을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찌~익!' 시끄러운 새로 유명한 직박구리가 모이대에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겨울이 오나 보다. 베란다 바깥에 물그릇과 먹이통을 갖춘 새 모이대를 만들어놓은 지 내년이면 꼭 10년이 된다. 5월에 이사를 왔는데 새벽에 어마어마한 새소리에 놀라 잠이 깼다. 살면서 그토록 많은 새소리를 들은 게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파트 바로 옆이 숲인 데다 때는 봄이었다. 1년 중 새들의 지저귐이 절정에 달하는 봄하고도 새벽이었다. 오죽하면 '트와일라잇 송'이라는 말까지 생겼을까.

저렇게 새가 많다면 모이를 먹으러 올지도 모르겠다는 호기심에 시작한 모이대는 이제 날마다 찾아오는 새들과 한 식구가 되었다. 다만 창을 사이에 두고 자유롭게 오가는 식구다. 주로 참새가 찾아오는데 처음엔 좀 예쁜 새가 와주길 바라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새가 점점 좋아졌다. 오래 보니 예쁘고 자세히 보니 사랑스러웠다. 관찰할수록 영리하고 멋진 새다.

야생에 사는 생명이니 당연히 먹이를 야생에서 구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드는 데다 겨울에도 눈다운 눈이 내리지 않으니 겨울 가뭄은 봄 가뭄으로 이어지며 야생의 목숨은 물 부족마저 시달린다. 참새가 그 작은 부리로 목을 축이는 걸 지켜보면 많아야 다섯 모금이다. 그런데도 물그릇에 물이 주는 걸 보면 꽤 많은 새가 오간다는 걸 알 수 있다. 목마른 새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집 베란다가 쓰인다 생각하면 기쁘다.

겨울 봉암사 다룬 오래 전 다큐서
산새에 먹이 공양 모습 인상 깊어
불가 헌식 전통, 겨울 산새 베풀길

직박구리가 모이대에 들르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자연에서 먹을 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모이대 당번을 제대로 서야 하는 계절이 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겨울은 야생에서 살아가야 하는 생명들에게 혹독한 계절이다. 추위를 견뎌내려면 땅콩이나 들깨, 해바라기 씨 등 지방이 풍부한 먹이가 좋다. '헌식이란 불가에서 공양할 때 배고픈 중생 몫으로 따로 떠 놓았다가 베푸는 일을 말한다.' 법정 스님의 에세이를 읽다가 '헌식'이란 걸 알게 되었다. 어릴 적 나들이를 가면 어른들이 '고시레' 하며 주변으로 음식을 조금씩 떼어 던지던 그 모습 역시 헌식의 일종이 아니었을까 싶다.

20년 전쯤에 제작된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보았다. 문경 봉암사가 배경이었는데 겨울이면 봉암사는 새들과 기꺼이 먹이를 나눴다. 한 스님이 기왓장에 곡식을 놔주면 곤줄박이며 박새 같은 산새들이 어떻게 알고 날마다 찾아와 먹고 갔다. 겨울 봉암사는 '새들의 어미가 되고 숲이 된다'는 내레이션이 감동적이었다. 대웅전 처마 밑에선 올빼미가 겨울을 나고 봉암사 주변 소나무 숲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까막딱다구리도 살고 있었다.

많은 산사가 새들의 어미가 되고 숲이길 빌어본다. 주변 생물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 아닐까. 추운 겨울 잣송이나 솔방울에 밀가루 반죽을 붙이고 거기에 견과류를 꽂아 동네 공원이며 가로수에 달아놓으면 겨우내 새들에게 요긴한 먹이가 될 것이며 따뜻한 보시가 될 것이다. 추운 겨울, 헌식의 전통을 이어봐도 좋겠다.

社 說

조계종 중앙신도회 약진을 기대한다

내년 창립 70주년을 맞는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선명상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은 10월 26~27일 양일간 나주 중흥골드리조트에서 열린 '2024 신도조직 임원연수'에서 "중앙신도회는 다가오는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선명상 확산을 위한 '전국 신도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신도 1만여 명이 함께 하는 대규모 선명상 보급 행사가 내년에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45개의 조계종 신도단체를 이끄는 중앙신도회가 선명상으로 국민 마음 평화를 도모하는 종단의 원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선 것은 여러 방면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서울 안암동에 선명상센터 건립 불사가 본격화되는 등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종단 사업이 다각도로 전개될 것이어서 중앙신도회의 선명상대회는 더욱 기대를 모은다.

70돌을 맞는 중앙신도회는 제28대 집행부의 출범과 더불어 중앙운영위원회를 강화에 나선다고 한다.

또한 정 회장은 사찰 경내 어린이·청년 전용 공간을 확보해 접근성을 높여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사찰을 찾을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안으로는 조직 정비부터 대외적으로 선명상 대중화, 젊은 세대 포교까지 전방위로 나서는 70돌 중앙신도회의 행보가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창립 70년을 맞는 중앙신도회의 약진을 기대한다.

자살 유족 위로법회, 범불교적 확대를

한국사회 자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율은 지난해 24.8명으로 OECD국가 중 1위다. OECD 평균은 10.7명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남은 것은 '자살 유족'이다. 이들은 자신이 막지 못 했기 때문에 자살이 일어났다는 일종의 책임감과 죄책감까지 더해져 정서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쉽다. 자살 유족의 자살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8.3~9배가량 높은 이유도 여기 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자살 유족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0월 30일 조계종 포교원 포교종책연찬회에서는 자살 유족에 대한 돌봄과 치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마포 성림사 주지 현담 스님은 2017~2019년 3년 간 자살 유족 위로법회를 봉행했던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에 따르면 명상 등이 이뤄진 법회를 통해 자살 유족들은 내면을 치유하고 위로를 받았다. 실제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 답변이 90%에 달했다. 자살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불교적인 프로그램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님들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위로법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성림사 회주 광용 스님(전 국비구니회장)의 말씀은 되새길 만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슬퍼하는 자살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진정한 자비행이다. 위로법회가 범불교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1월 6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1월 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1월 6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4 어싱Earthing 제품 특판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베이지

어싱 매트·베개·방석 특판 할인

오직 들꽃잠이 엄선한 그래핀 신소재로
전하는 깊고 진한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열 에너지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